

“조이진 말자”… 나긋해진 Fed

美 연준 ‘6월 금리동결’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 내에선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고 있으니 인상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연준의 긴축 행진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선부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의견을 담은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했다. 이번 베이지북은 4월 중순부터 5월 22일까지 수집된 정보들로 구성됐다.

연준은 “고용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이전 보고서보다 느린 속도였

다”며 “임금은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선 “완만하게 올랐고 많은 지역에서 상승률이 둔화했다”며 “대부분 지역 담당자들은 향후 몇 달 동안 비슷한 속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제조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 수준이었고 공급망 문제는 계속 개선됐다”며 “운송 서비스 수요는 감소했고 특히 트럭 운송 부문에서 ‘화물 경기 침체’가 있다고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 “상업용 건설과 부동산 활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오피스 시장은 계속해서 취약함을 유지했다”며 “몇몇 지역에선 소비자 대출 연체가 늘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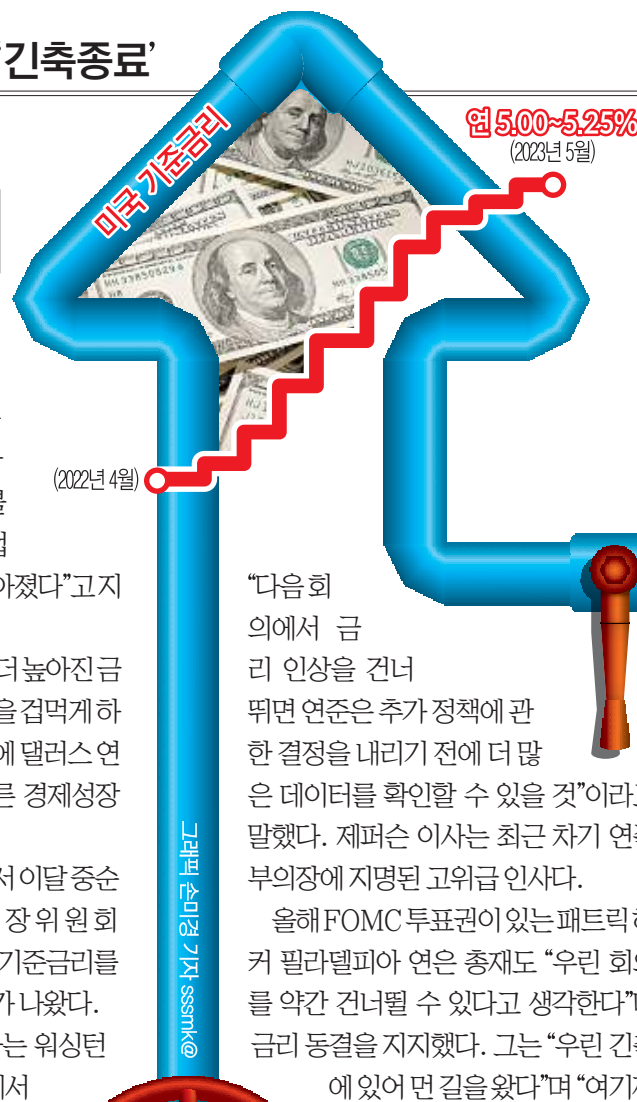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

리도 나왔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은 “금리 상승과 부채한도 결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 향후 사업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은 “더 높아진 금리가 신생 기업 경영인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밖에 댈러스 연은 등이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 내에서 이달 중순 열리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美 고용·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 발표
“이달 금리 건넌뒤자” 의견 우세
목표물가 아직… 긴축종료 일러

지은 만큼 데이터와 전망을 검토해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쉬어가더라도 연준 이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제퍼슨 이사는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도이체방크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연준은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강하다”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2~4회 더 올리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젠 풀어도”… 느긋해진 ECB

유럽 ‘긴축종료’ 기대 고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양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의 긴축 시계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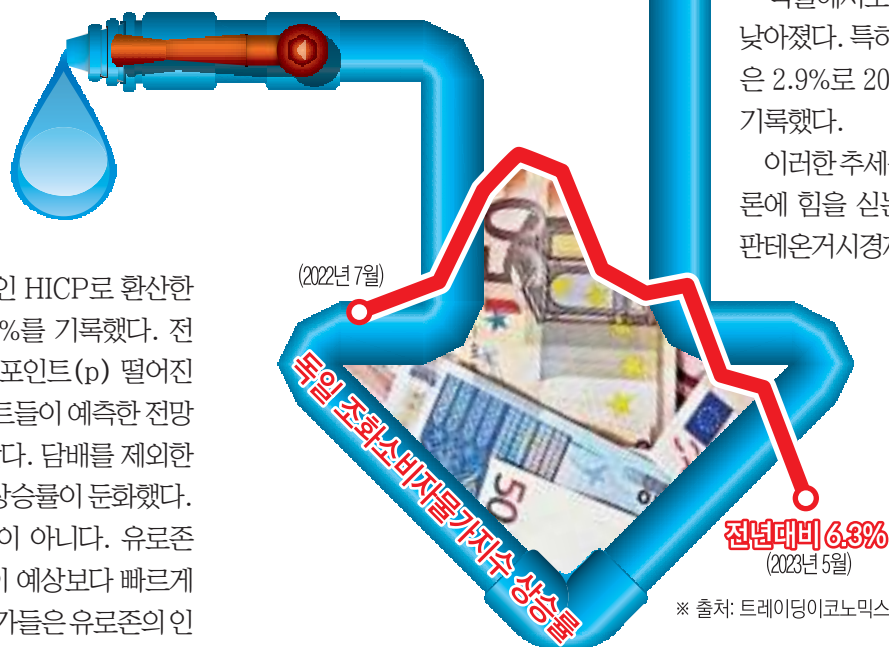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이날 5월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 속보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수치인 7.6%와 시장 전망치인 6.8%를 모두 밑돈 것이다. 정부 보

조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식품·상품·서비스 가격 상승 폭도 둔화했다.

프랑스역시 유럽 중앙은행(ECB)이 사용하는 물가 지표인 HICP로 환산한 인플레이션율이 6.0%를 기록했다. 전월 6.9% 대비 0.9%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한 전망치 6.4%보다도 낮았다. 담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다.

이는 두 나라뿐만이 아니다. 유로존 전체에서 물가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인



플레이션율이 4월 7%에서 지난달 6.3%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5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스페인의 인플레이션율은 2.9%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ECB의 금리 인상 종결론에 힘을 실는다. 클라우스 비스테센 판테온거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뚜렷하다”며 “ECB의 금리 인상 주기가 7월에 끝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 있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獨·佛 물가상승률, 1년來 최저
“근원물가 수치 크게 하락하면
금리인상 주기 7월 끝날 수도”
경기위축 우려도 인상에 제동

유럽 지역의 경기위축 우려 또한 추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독일 경제는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한 상태다. 유로존의 은행 대출은 6개월 동안 정체돼 신용 경색 우려가 커졌다.

관건은 근원물가다. ECB 당국자들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 수치에 주목하고 있다. 근원물가 수치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면, 올여름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변효선 기자 hsbun@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제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금접지 대출발기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자금을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표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닭고기 14조, 교복 160억... 골목 업종까지 무차별 담합

물가 인상 부추긴 카르텔

7조 원대 철근 조달 입찰 담합과 2조 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한 병당 6만 원을 덮어씌운 160억 원대 교복업체 담합, 14조 원 규모의 닭고기 담합, 아이스크림 담합까지.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의식주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담합 사범을 적발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집중 수사한 결과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특히 입찰가격 담합은 낙찰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서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교복 담합' 적발 후 가격 '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 시 20%를 웃도는 가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빙과 4개사 100억원 부당이득

철도 침묵은 낙찰가 23% 뛰고

아파트 가구업체 2.3조 째짜미

"담합 없으면 공공조달가 20%↓"

부장검사)는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이후 담합 이전 96.6%에 이르던 투찰률은 현저히 낮아져 평균 79% 선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교복 가격이 정상화됐다.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참가업체가 투찰한 투찰가격의 비율로서,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가가 오르고 소매가도 따라 상승한다.

광주지역 중·고교생 교복업체들은 총 45개 업체가 160억 원대의 입찰 담합행위를 통해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복가격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올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한 것이다.

◇검찰·공정위, 협력체계 강화 =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해보험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보험료 분배조건을 두고 둘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을 벌였다. 손보사들은 130억 원 상당의 주택기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담합 보험사 4곳과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2000억 원 규모의 철도 침묵 구매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 가격 공유, 낙찰예정자 지정 등 담합행위가 발생해 낙찰가격이 22.5% 급등하며 업체들이 2000억 원대 매출을 거둬들였다.

검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공정거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담합 사건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서민물가 교란 및 시장질서 침해 담합 사건에 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생활물가 교란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물가 인상 부추긴 주요 담합 사례

교육  - 160억여치 교복 입찰담합으로 1병당 6만원 상승	주거  - 2.3조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 아파트 화재보험 담합해 130억원 부당이득
식품  - 아이스크림 가격 미리 정한 4개업체 100억원 부당이득 - 14조원 규모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공공입찰  - 7조원 규모 철근 담합으로 6700억원 국고손실 - 2000억원 규모 철도 침묵 구매 입찰담합

엄마 되면 58%가 경력단절 재취업 땀 직업의 질도 하락

2022년 25~54세 여성 조사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경력단절이 더 심했고, 경력단절 후 직업의 질과 지위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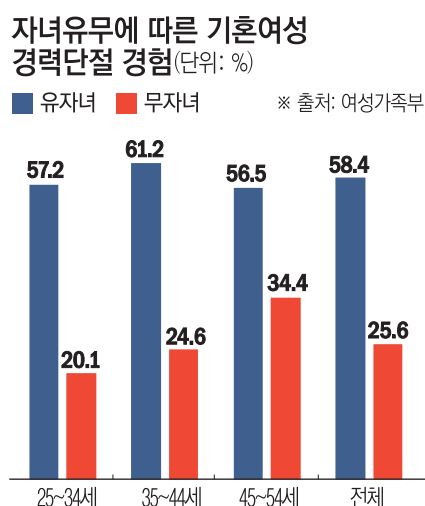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만 25~54세 여성의 42.6%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경력단절의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그 기간은 8.9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에 따라 경력단절 경험은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경력단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전체의 58.4%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25.6%에 그쳤다.

자녀로 인한 경력단절은 코로나19 기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일을 그만둔 직접적 요인으로는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의 대응방안의 부재'가 4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같은 시기 일을 그만둔 여성의 65.6%는 30대였으며, 그중 53.9%가 대면업무가 많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갖게 되는 직업의 질과 지위도 달라졌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일자리 중 '사무



무자녀는 4명 중 1명만 '경단 경험' 재취업 후 월급, 전직장 85%로 똑

직'은 23.7%포인트(p), '전문가'는 5.2%p 준 반면, '판매직'은 14.0%p, '서비스직'은 12.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이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알고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세상의 모든 연결이
더 행복해지도록

모두를
잇다.

QR 코드

[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를 잇다-연결' 광고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하나증권 모델
강태오

CC브랜트221025-0164

‘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 지정… 메가펀드 1兆 조성

정부, 제5차 수출전략회의

정부가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설비 투자 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우수 기업·인재 유치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서울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빠르게 개발된 코로나19 mRNA 백신 등과 같은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목표 시설 35%·R&D 50% 세액공제 규제 풀어 융합·네트워킹 지원 디지털 인프라 조성 산업 고도화

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게 것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 시설투자 시 25~35% (투자 증가분 10% 포함)의 투자세액공제율이, R&D 투자 시 30~50%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5년까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 주기에 투자하는 메가펀드 1조원을 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한다. 이 중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펀드(2000억원+α)’가 조성된다.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프로젝트 등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로 기술개발·인력양성을 꾀하는 보스턴-코리아(Boston-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

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터를 개방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CT, MRI) 등 공공기관 및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마케팅 데이터 도입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주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산업 선도를 목표로 산·학·연과 병원 등이 혼합 배치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한다. 판교에는 첨단산업기관이 집약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구축하며, 부산과 광주에는 창업가 거리를 조성한다. 이번 육성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패키지를 통해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바이오 주력)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대법 “타다, 불법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원심 확정, 논란 4년 만에 결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약관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기존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유에서다. 또한 타다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한 특정 회원들에게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구여객자동차법상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금지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고의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수출 8개월 연속 감소… 15개월째 무역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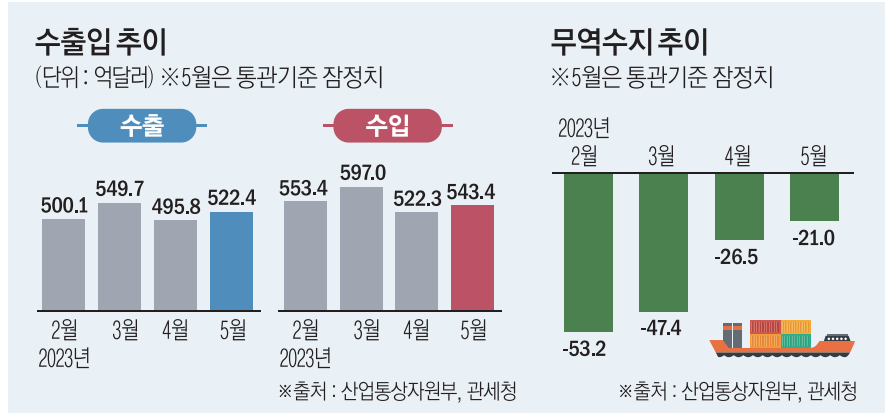
산업부, 5월 수출입동향

조업일수 감소·IT업황 부진 영향 반도체 36.2%↓… 수출 15.2%↓

우리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대(對)중국 수출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인 24억 달러대를 기록했고 대중 수출도 100억 달러를 회복한 점은 위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한 522억4000만 달러,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4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감소, IT업황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5월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베트남은 최근까지 대세계 수입 감소가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대중국·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수출이 월 기준 2위



(615.9억 달러, 21.4% ↑)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9.3% 감소한 24억3000만 달러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24억 달러대를 회복한 점은 위안이다. 15대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를 제외한 13대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 뼈아프다. 지난해 115억 달러를 수출한 반도체는 36.2% 감소한 73억7000만 달러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급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버용 출하 부진, 높은 재고량 등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각각 33.2% 감소한 436억 달러, 26.3% 준 38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유가 하락과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선박(-48.0%), 컴퓨터(57.5%), 바이오·헬스(27.1%) 등도 우리 수출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자동차(49.4%)와 일반기계(1.6%)는 증가해 체면을 살렸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의 아쉬움이 크다. 대중 수출은 20.8% 감소한 10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을 줄였다. 대미 수출도 1.5% 감소하며 94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정부 “日 후쿠시마 어류, 韓 연안 이동 가능성 낮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 초과 없어 해양수산부, 일부 전문가 주장 반박

정부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 경로, 조업 위치 및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수산물은 해류와 상관없이 오염된 것을 먹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일부 전문가

들의 주장을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일본 원전사고(2011년 3월)를 기점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품목·건수를 확대해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 수산물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약 2만9000건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수심 200~500m 물은 일본에서 중국 쪽으로 가며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갔다가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해서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수부는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0.001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1차 시료 분석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방사성 핵종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IAEA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와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참여실험실 간 상호교차 분석한 보고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오발령으로 국민 불안”

‘北 발사체’ 軍 대응 놓고 與野 국방위서 날선 공방

“文정부보다 잘했다”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1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날 발송한 경제정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발사체 대응이 잘 됐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野 “발사 한참 지나 경계경보 문자
軍 미흡한 대응으로 불안 더 키워”

與 “한미일 정보 공유 등 안보 개선
민첩한 대처… 낙하물 정확히 인양”

이에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전 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군은 군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또기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발사) 한참 후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 31분에 나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비판했

다. 이어 일본 정부가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일 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와 국방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성일종 국
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
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
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와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경기도당최고위원회의 참석한 김기현

김기현(맨 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여정 “위성발사 우리만 안된다는 건 억지 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규탄한 미국에 대해 1일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그 누구도 위 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위성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야말

로 자기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도 조선반도 상공에 술한정찰위성들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자산들을 짝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발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만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가리켜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급차 뱅뱅이 막자”... ‘공공의대법’ 급물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던 중 사망했다. 같은 달 5일 어린 이남연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가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날 사망했고, 3월 대구에선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로 다친 뒤 병원 이송 중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뱅뱅이' 사고 등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자,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인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 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

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선발할 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2배로 해 선발하도록 하고, 공공의 대졸업 후 의사가 되면 지정 공공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공적인 성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찾아야 하는 문제 등이다. 정영민 기자 oin@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지자체 장려금 지원

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KIC, 투자기업에 첫 의결권 직접 행사… 메타 등 10곳 대상

책임투자 강화 포석

포트폴리오 비중·지분을 따져 ESG 개선에 중점 두고서 표결 “주주권 행사 국부펀드에 중요”

국부펀드 KIC가 창립 이후 최초로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장기 투자기관으로서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생명과학 기업 써모피

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을 시작으로, 주요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주에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스위스 광물 기업 글렌코어(Glencore), 31일에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Exxon Mobil)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이어 2일에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KIC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에 찬

성표를 던지는 등 세계 주요 기업의 ESG 개선에 중점을 두고 표결한다.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진승호 사장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국부펀드의 중대한 투자활동 중 하나”라면서 “의결권 직접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ESG 투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사장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주주 활동을 통해 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C는 2018년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

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제정했다. 이듬해에는 주주 권리 전문기관을 통해 KIC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작했다. 또한 외부 운용사 선정 시에도 책임투자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어 올해부터는 주요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KIC 내부 인력이 직접 의안을 분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책임투자 전담 부서로 만든 ‘책임투자팀’에서의 의안 분석 등을 진행한다.

KIC는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보유 규모(포트폴리오 내 비중 및 지분율)가 크거나 △ESG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높은 기업 위주로 선정한다. 올해는 기업 10곳 이상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획

이다.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KIC는 앞으로 주주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0개사, 2025년에는 150개 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개 주주 서한,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진 미팅 등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국산 양파 ‘맵시향’ 수확 1일 전남 무안군 농촌진흥청 파속채소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양파 ‘맵시향’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떠나 시골... “살아보니 괜찮더라”

복지부, 미래·인구전략포럼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원인 청년들 살기 좋은 지방 만들 것”

“일해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으로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9년 서울을 떠나 강원 양양군에 정착한 김희주 작가가 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대중문화 기자와 광고·홍보 기획자, 프리랜서 에디터로 10년 넘게 일했던 김 작가가 양양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2016년 논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났고, 우연히 들른 양양의 견본주택에서 충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다. 2년 뒤 남편이 먼저 이주하고, 김 작가도 뒤를 따랐다.

양양군에서 남편은 목수로 전직했고, 김 작가는 가구공방을 운영하며 마케팅 프리랜서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공방을 닫아야 했다. 이후 김 작가가 부부는 새 길을 찾았다. 김 작가는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남편은 국토관리청 공무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지식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적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시 열어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차 미래와 인구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 작가와 최별 MBC PD의 지역 정착 경험담 발표, 전남 영광군과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표, ‘청년 지방 유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러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지방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청년 유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 귀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최 PD는 전북 김제시에서 ‘귀고 싶어서’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다가 김제 시민이 됐다. 서울과 김제를 오가며 생활하는 와중에 김제에서 빵집과 문방구, 책방 등을 운영하며 ‘시골살이’에 적응했다. 그 과정을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했다. 그가 만드는 콘텐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공간이다. 또 자신의 경험과 콘텐츠를 다른 청년들과 공유하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 PD는 김제에서 지내며 깨달은 건 “살아보니 괜찮더라”는 것이다.

영광군과 의성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결혼·주거 지원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시흥 등 6개 지구에 광역· 시내버스·DRT 신설

국토부, 광역교통 보완정책

지구당 24억 투입해 교통 확충

정부가 교통이 불편한 시흥권 등 6개 지구에 광역·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일 시흥 군자·목감·은계·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 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해 차례로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수립 중이다.

우선 시흥 군자, 목감, 은계, 장현 등 4개 지구는 은계~목감~판교, 장현~목

감~판교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6501번과 6502번은 각 1대씩 증차하고 출퇴근 전세버스인 3301번은 출근 시간 1회 증회한다. 시내버스는 500번, 17번, 5601번이 운행을 개시하고 27번은 2대 증차한다. 마을버스 3-A·B와 6-6-1번을 1~3대 증차한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출퇴근 전세버스인 G 6100번을 4회 증회하고 고산지구와 인근 철도역(장암·탑석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또 고산지구 내, 고산지구와 인근 철도역 및 광역버스정류장 간 운행하는 DRT 8대를 신설·운행한다.

광명 역세권지구는 광역버스 8507번을 2대 증차하고 광명역~목동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에 나선다.

대광위는 또 남양주 진접 2, 울산 다운 2, 부산 에코델타시티, 4개 중장기관리 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 원)을 반영해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은 국제콘퍼런스 참석자들 “연준, 금리 인상해야”

前 미니에 연은 총재·사전트 교수 이창용, 美경제석학들과 3자 대담

미국 현지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일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창용 한은총재와 나라이나 코첼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한국은행 고문)가 3자 대담을 펼쳤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했으며, 사전트 교수는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들이다.

이 총재는 대담에서 이들에게 13~14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할 시점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3년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총재, 나라이나 코첼라코타 교수, 토마스 사전트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만약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올릴지 말지거나 아니라 25bp 인상인지, 50bp 인상 인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트 교수도 “저 역시 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 뿐 아니라 과거에는 금기시됐던 자산매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정부, 중앙은행, 의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첼라코타는 기초연설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영록 기자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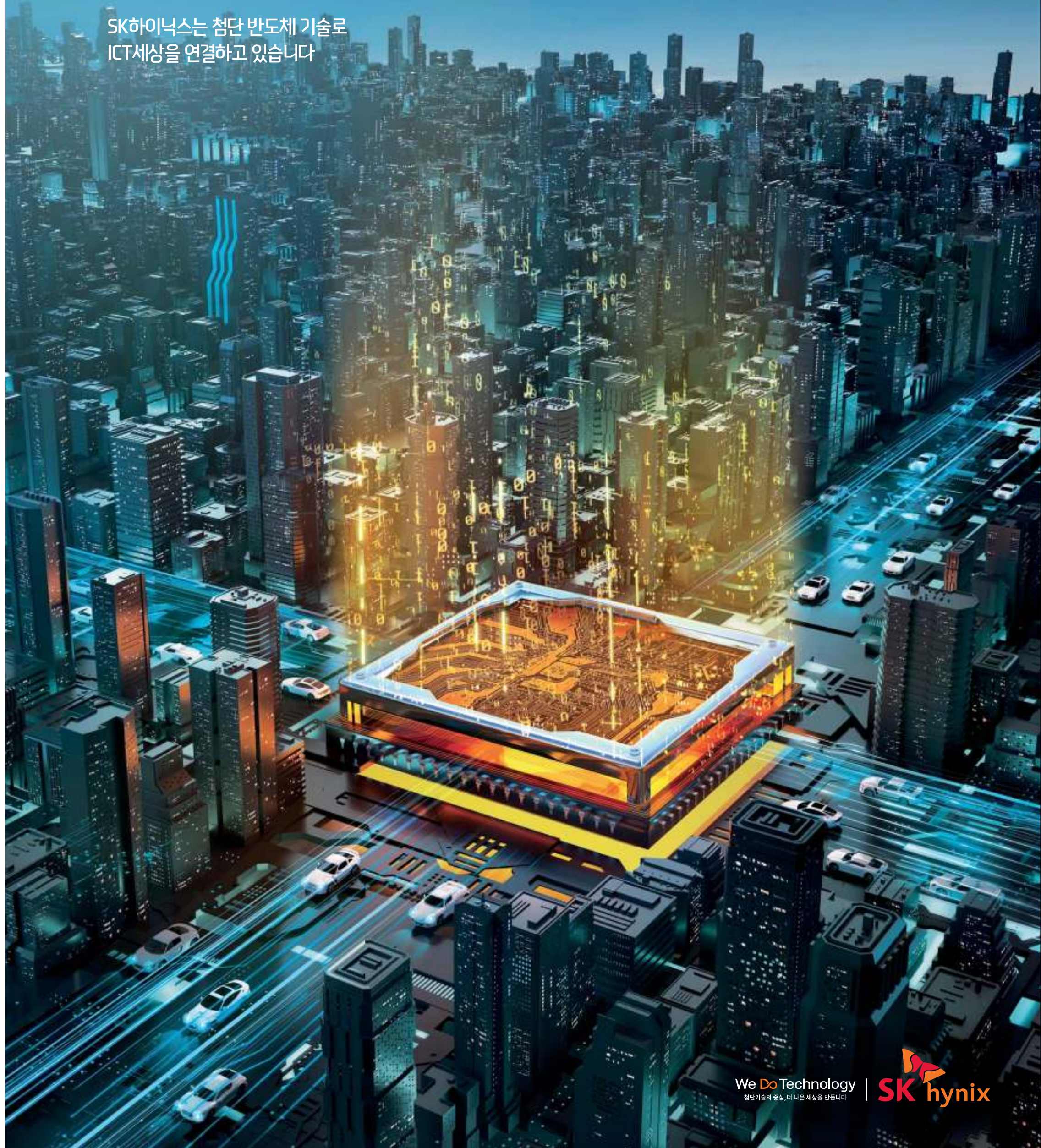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상 기후에 백기 든 美보험사… 상품 판매 중단·철회

자연재해 피해 보상금 ‘눈덩이’
켄터키, 홍수 보험료 4배 급등
플로리다 등 주택보험 계약 중단
주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시큰둥’

미국 보험회사들이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재해 대비 보험상품에서 손을 떼고 있다. 산불, 홍수,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 급증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된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제한을 넘어 아예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재해 취약 지역을 떠나고 있다. 미국 대형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은 최근 산불 빈발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스테이트팜은 “모든 기업과 개인의 손해 보험을 포함해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며 “급격히 커진 재해 노출과 건축 비용 급등, 어려운 재보험 시장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캘리포니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년 여름 폭풍우로 피해를 본 동부 켄터키 일부 지역에서는 홍

수 보험료가 4배나 급등했다.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몇몇 보험사들이 작년 여름 허리케인 시즌을 앞두고 잇따라 주택 보험 계약을 중단했다.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에는 남아 있는 보험사도 많지 않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집을 싸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2020년 허리케인 로라를 시작으

로 수차례 태풍이 몰아쳤고, 막대한 보상금을 이겨내지 못한 민간 보험사 9곳이 문을 닫았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보험사를 유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역시 대형 보험사 대다수가 이미 철수한 상태다.

보험사들이 재해 보장을 기피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로 돌아가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보험 가입을 주택담보 대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한 데다가, 가까스로 가입 승인을 받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기상재해로 인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트레인대학교의 제시 킨 교수는 “기후변화가 폭풍을 더 강

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보험이 선택사항이 아니게 됐다”며 “저소득층은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주택을 끊임없이 고칠 만큼 재산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톰 코링엄 미국 캘리포니아대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 연구원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막대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집에 살도록 두는 것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정부차원에서 가장 위험이 큰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주민들을 위험 지역 밖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보고서는 1970~2021년 극단적인 기상 이상 현상으로 약 1만2000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4조3000억 달러(약 5686조7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났다고 추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 은행 위기發 예금 감소폭 ‘사상 최대’

전분기 대비 4720억달러 줄어

은행 위기 여파로 미국 은행 예금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올해 1분기 은행 예금이 지난해 4분기보다 4720억 달러(약 624조 원) 줄어든 18조742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감소폭으로 보면 1984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대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으로 인한 은행 위기가 예금 인출 움직임을 가속했다. FDIC는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에 대한 인출이 늘면서 전체 예금 감소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비보험 예금은 전분기 대비 6633억 달러(8.3%) 감소해 전체 예금 감소율 2.5%를 웃돌았다. 예금보험 보호

를 받는 예금은 2551억 달러(2.5%) 증가했다. 미국은 현재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행에도 신용불안이 확산하는 중이다. 예금자들은 대형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자금을 옮기는 추세다.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MMF 잔액은 1분기에 약 10% 증가해 5조 달러를 돌파했다.

FDIC는 올해 1분기 은행 순이익이 16.9% 증가한 79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은행 두 곳의 파산 영향을 고려하면 이익 수준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자렛 세이버그 TD코웬 애널리스트는 “은행업계 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시각을 가늠하는 데 2분기 상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韓·美·日, 北발사체 대비 협력 강화”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1일 도쿄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자칭 ‘군사정찰위성’을 개발사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한국을 포함해 3개국 이 협력과 경제·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참석에 앞서 일본을 찾았다.

‘印尼 배터리 투자’ 암초 만난 韓기업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내 배터리 소재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던 한국 기업들이 암초를 만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한국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니켈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핵심 원료다. 그러나 현지 니켈 생산과 가공 대부분은 중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2곳,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엔 SK온이 국내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와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들어선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액이 30억 달러(약 4조

中 주도 니켈 생산… 협력 불가피
美IRA 보조금 혜택 제외 가능성

올해 현지 투자액 30억달러 넘어
전문가 “美 양보 없인 막대한 차질”

원을 넘어섰는데, 대부분 배터리 관련 투자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용인할 것인지를 애초 미국이 IRA를 시행하게 된 배경엔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유도하기 위함도 있다. 만약 미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을 IRA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기껏해야 지역 생산 허브에 그치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 핵심 허브로 삼으려던 한국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의미다.

김경훈 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의 주요 허브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미

국의 양보 없인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팀 부시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업들에 2025년 초까지 IRA 규정을 준수한 공급망 구축을 완료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규칙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망 다각화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강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IRA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FT는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기 쉽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가공한 니켈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해도 IRA 준수 대상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3월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주요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하원,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 가결

찬성 314표 통과… 상원 표결 남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했던 부채한도 상향안을 승인했다.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예상과 달리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하원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을 나눠 갖고 있으며 통과를 위해선 과반인 218석이 필요했다.

애초 양당 강경파들이 상향안에 불만을 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투표 직전까지 정부 지출 추가 삭감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기대 이상의 표가 나오면서 상향안은 이제 상원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은 165표, 공화당은 149표를 찬성에 던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원 투표

결과는 매카시 하원의장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원과 거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명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상원에서의 최종 투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가 6월 5일을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그 전에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카시 하원의장도 “상원에 6월 5일 전까지 법안을 검토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당 내 찬성파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상원 통과를 더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밤 하원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막고 경제회복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며 환영했다. 그는 “초당적 타협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그간 분명히 해왔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내가 법안에서 명하도록 해줄 것을 상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삼성전자 회장〉

호암상 시상식 찾은 이재용, ‘뉴리더 동행의지’ 빛났다

2년 연속 참석…수상자 격려

국가 기초과학 분야 확대 제안
삼성호암상 한 단계 발전 평가
임지순·최경신·선양국 교수 등
개인 5명·단체 1곳 수상 선정
삼성 사장단 50여 명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재계는 삼성호암상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이 선대의 ‘사업보국’ 철학을 지속 계승·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삼성의 ‘뉴리더’로서 사회와 함께하는 미래 동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홀에서 열린 ‘2023년도 제33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수상자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호암상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인재제일·사회



이재용(앞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회장,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조성진 피아니스트 대리 수상), 임지순 석학교수 부부,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 최경신(뒷줄 왼쪽부터) 교수, 선양국 석좌교수 부부, 마샤 헤이그스 교수 부부, 글로벌케어 박용준 회장, 추성이 공동대표가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헌 정신을 기려 1990년 제정했다. 생전 이 선대회장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회장 삼남매와 함께 매년 시상식에 참석해왔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이 회장이 호암상을 챙겼다. 그러나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다 6년 만인 지난해 다시 찾았다.

이 회장은 국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직접 제안하는 등 호암상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 이 회장은 공학이나 의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시상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21년

과학 분야 시상을 확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선대회장이 삼성호암상을 제정, 국내외 한국계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면 이 회장은 뜻을 이어받아 국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삼성호암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호암상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임지순(72) 포스텍 석학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최경신(54)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공학상 선양국(62) 한양대 석좌교수 △의학상 마샤 헤이그스(49) 미국 하버드대 교수 △예술상 조성진(29) 피아니스트 △사회봉사상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등 개인 5명, 단체 1곳이다.

호암재단은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씩 총 18억 원을 수여했다. 다만 예술상은 수상자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해외 공연 일정으로 스승인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리 수상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이 회장과 삼성 사장단, 수상자 가족, 지인 등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삼성 사장단은 해외 출장 중인 경영진을 제외한 김기남 삼성전자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최윤희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50여 명이 총출동했다. 축하연주는 박수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맡았다.

장효진 기자 js62@·이다솜 기자 citizen@

3분기 판매 꺾여도…현대차·기아 영업익 ‘이상無’

5~6월 조업일 감소·설비 공사
영업이익 9~12% 안팎 ‘긍정적’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가파른 판매 상승세가 2분기를 정점으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공장의 5~6월 조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전환을 위한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 때문이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34만9194대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14.4% 증가한 26만8593대를 팔았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같은 판매 증가세를 놓고 “2분기를 정점으로 주춤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2분기 실적에 포함되는 5~6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1~2일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부 공장은 이미 5월 말부터 가동중단에 돌입했다. 기아는 전기차 생산설비 공사를 위해 5월 말부터 오토랜드 광명2장 가동을 중단했다. 공사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7개월이다.

가동을 중단한 광명2공장은 100% 수출 전용공장이다. 프라이드(YB)와 스톨닉(YBCUV) 등 수출형 소형차를 월 1만 1000대 수준 생산한다.

가파른 판매 상승세가 2분기를 기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은 이 같은 대내외 여건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판매 상승세가 한풀 꺾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9%와 12%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현대차 판매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103만1000대)보다 5.3% 감소한 97만6000대에 머물렀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각각 18.7%와 57.9% 증가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출고 대기기간이 빠르게 줄었고, 해외시장 재고 역시 적정수준으로 돌아왔다”며 “기아의 판매는 비정상적인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2분기를 정점으로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오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그룹, 생산거점 다변화 이유 보호주의에 대응…시장주도권 확보

국가별 산업정책에 맞춰 추진
선제 대응해 사업위협성 축소

현대차그룹이 부품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다. 각 국가의 산업 육성기에 선제적으로 거점을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차의 HTWO 광저우는 수소차에 탑재되는 부품인 ‘연료전지시스템’을 생산하는 곳으로, 육성기에 돌입한 중국의 수소차 산업을 겨냥한다.

중국은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 ‘중국자동차공정학회’를 통해 2035년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누적 100만 대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듬해에는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 지역(산둥)과 △상하이 △광둥 △허베이 △허난 등 5개 도시군을 시범 도시로 정하고 2025년까지 수소차를 총 3만3010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시스템 신공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현지 부품과 인력 등을 활용해 현지화

율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현대차는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아세안 지역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아이오닉 5를 양산 중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시장 주도권 확보 외에도 최근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 시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배터리 현지화 조건을 충족하고,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4월에는 SK온과, 지난달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각 국가의 산업 육성책에 맞춰 해외에 거점을 설립하면 사업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산업 육성기에 선제적으로 거점을 만들면 시장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삼성전자, 인텔·엔비디아·퀄컴과 개방형 SW 개발

리눅스재단 ‘RISE’ 프로젝트 참여

삼성전자가 첨단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미국 현지 시간) 오픈소스 비영리단체 리눅스재단이 발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RISE(RISC-V Software Ecosystem)’의 운영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RISE는 오픈소스 반도체 설계자산(IP)인 ‘RISC-V(리스크 파이프)’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구글,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IT·반도체 업체들이 참여한다.

RISC-V는 특정 기업이 소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어떤 기업이든 무료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ISC-V 기반 칩셋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구현이 쉬워지고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어 향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동국제강, 3개사 분할…장세주·장세욱 ‘투톱’

동국제강그룹이 1일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개사로 분할 출범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3개사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 승인에 따른 분할 절차 종료 및 창립 보고를 겸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회 의장으로 장세욱 부회장을 선임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과 함께 전략 컨트롤 타워 동국홀딩스에서 그룹 미래 성장전략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인적 분할을 완료함에 따라 분할 3사 모두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은 이달 16일이다.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

동국제강그룹은 하반기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포스코, 포항·광양에 6개 정비 자회사 출범

포스코가 설비 경쟁력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 전문 사업회사를 출범시켰다.

포스코는 1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김학동 부회장, 이시우 사장, 정비사업회사 임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회사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포스코가 설립한 정비사업회사는 총 6개사로, 지역별로 포항과 광양에

각 3개사이다. 사명은 세부 전문 업종에 따라 선강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 P스테크·포스코 GYS테크, 압연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 PRE테크·포스코 GYR테크, 전기·계장(計裝, 온도계·압력계 등 계측기기를 제어하는 장치) 정비를 수행하는 포스코 PH솔루션·포스코 GY솔루션으로 정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복수의결권 정착 위해 ‘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해야”

벤처기업협, 업계·전문가 간담회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벤처기업계와 전문가들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누적투자금 등 요건의 허들이 높으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복수의결권 관련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주 기준·주식발행 요건 등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업계 혼란
누적 투자금액 등 기준 높으면
활용 어려워... 요건 완화해야

활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의견의
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책 반영에 건의하
기 위해 마련됐다.

관권형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는 “기본적인 틀은 거의 완성됐는데 누적 투자금액, 최종 투자금액 등 투자 조건이 시행령으로 유입됐다”며 “허들이 높아질수록 문은 좁아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얼마로 하는지 자체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정의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업계 입장에서 제도가 처음이고, 창업주 요건도 있으니 가능하면 누적투자금, 최종투자금

등을 완화해 많은 기업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다만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관찮은 기업에 좋은 기회를 주자는 모토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에 들어갈 투자 금액의 규모에 관해서는 생각보다는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낮아질 경우에는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들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전
달했다. 정택수 넷스피 대표는 “최근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관에 반영하자는 얘기를
저희 투자사부터 했다”며 “검토한 지 3주
가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준비하는 입장
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
일까 고민된다”고 밝혔다.

황동훈 웰트 선임도 “복수의결권 제도

의 취지 자체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미 투자를 받았던, 어느 정도의 투자를 진행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창업주 기준이 많이 벗어나는 등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남는다"고 말했다.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발행 요건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두 번째 투지를 유치할 때 도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지 실무적으로 걱정이 된다”며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창업자들에게 빨리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반대 여론이 워낙 많아서 도입해야 한다는 답론 중심으로 오갔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시행령 작업을 통해 11월 개정이안 발표될 시간 동안 기업의 세부적 요구사항과 전체적인 논리에서 놓친 부분을 가다듬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도레이첨단소재 ‘배터리 분리막’ 도전장

도레이BSF한국 지분 70% 인수
전기차용 첨단소재로 사업 확장

도레이첨단소재가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의 지분 70%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도레이BFS한국은 배터리 분리막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일본 도레이의 핵심 생산 거점이다.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제조 전문 기업으로 고도의 제막기술을 보유해 전기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용, 축전용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전기차 MLCC용 이형필름, 모터절연지용 아라미드, 전기차 흡음재용 원면 부직포, 전기차 열관리 모듈용 PPS수지, 경량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료 등 전기차 및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다수의 첨



도레이첨단소재의 분리막 제품.

단 소재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도레이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레이BSF한국의 경영체제를 한국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는 물론, K-배터리산업 밸류체인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을 세웠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급성징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분리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분리막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외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취임...“디지털·저탄소 대전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12대 이사장에 이상훈<사진> 전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위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날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산업단지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산단공이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의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매출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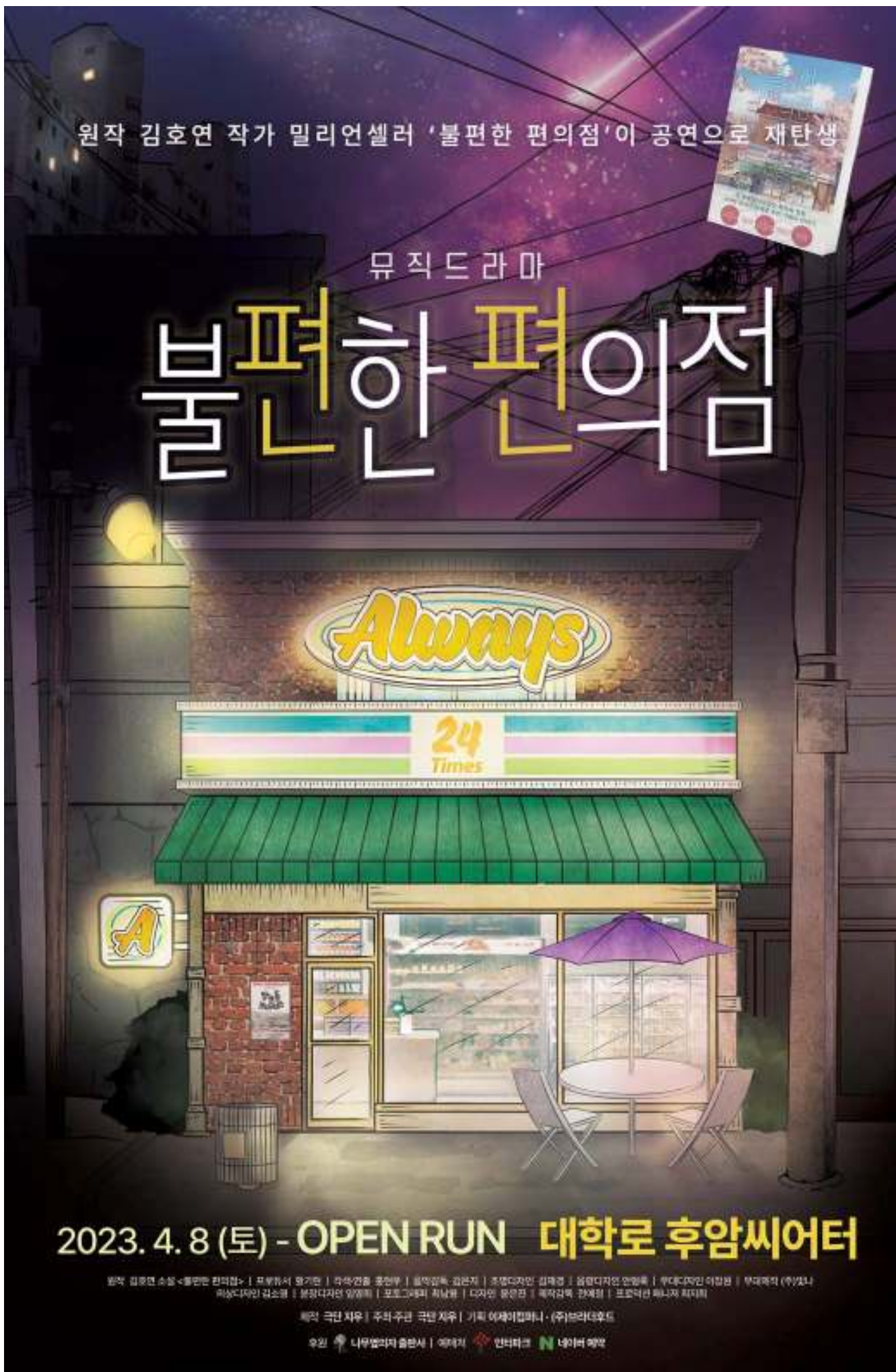
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업 의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관광객이 찾는 매력



적인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색 있는 브랜드산단,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구현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는 “전 직원의 사고
전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산단공의 조직
효율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도 꼼꼼히 행
여나가겠다”고 했다.

임직원들에게는 “현장에서 기업의 목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기업이 도약
할 수 있는 구름판으로 산업단지를 이끌
어 가야 할 것”이라며 “도메인 특화 인공
지능(AI), 협동로봇, 6G, 탄소포집, 분
산에너지 등 혁신기술의 컨설턴트로 활동
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2023. 4. 8 (토) - OPEN 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본작 집무진 소속 <출연진 인터뷰> | 포부남씨 열거한 | 작사·연출: 오은아 | 음악감독: 김민지 | 조감독: 김재현 | 촬영감독: 안영호 | 부감독: 이창현 | 부감독: (주)나비
비주얼디자인 김소영 | 분장디자인 안영미 | 프로그래밍: 최남현 | 디자인: 문은진 | 제작: 김재현 | 프로덕션: 나비 & 제이비

책적 극단 자유 | 주의주관 극단 자유 | 기쁨의새아침파니 · (주)브라더스후드

오일 나무젓가락지 출판사 | 이라지 만년화 N 네이버 지식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FIU서 금감원으로 넘어가나

‘가상자산법’ 정부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 땀 관리감독 가능

거래소들 “적자 허덕이는데
감독분담금까지 내야할 판”
금감원 권한 확대에 속내 ‘불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부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 정부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 타임라인

연도	월	주요 내용
2022년	11월	가상자산 주석 공시 신설 의무화
	2월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 운영 시작
2023년	5월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자본시장 못지 않게 내부 검토중”
	23일	
	5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대비 간담회 개최
	30일	
	6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 설치
	1일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제18조 한 줄이지만,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이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해당 규정의 제3조 금융관련법에 가상자산법을 명시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완전히 마련할 수 있다.

국회 정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움직이는 건 구체적인 법령이 아니라 금융위가 고시하는 행정 규정이다. 가상자산법

이 통과되면 해당 행정 규정의 금융관련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가상자산법을 추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감원으로 (관리 감독 권한이) 갈 것처럼 보인다. 어차피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 조사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체는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금감원 전체 재원의 약 72%

를 차지한다.

다만 실제로 가상자산 업체가 분담금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핀테크·P2P·클라우드 펀딩 업체에도 분담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전문가 영역과 업계 의견 수렴, 분담금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수년간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다. 또 분담금은 회사의 영업 수익과 감독 수요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권한이 없는데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이 도입돼도 거래소 대부분 적자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업비트나 빗썸 정도만 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시온 기자 zion0304@

“확률형 뽑기 사라지니 재미 업 차별화된 스토리·그래픽도 굿”

해보니 엔씨아심작 ‘TL’

이동 못하고 제자리서만 공격
사냥·전투 부분은 다소 ‘맛잇’



엔씨소프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다섯 번째 플래그십 타이틀 ‘쓰론엔리버티(TL)’가 일주일간의 베타테스트를 마쳤다. 엔씨는 총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가한 이번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게임 콘텐츠뿐 아니라 BM, 길드, 거래소 등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투데이도 테스트에 참가해 게임을 플레이해보며 느낀 장단점을 공유한다.

엔씨가 TL을 통해 글로벌 유저까지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만큼, 그간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잡았던 ‘확률형 뽑기’를 과감히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게임의 주요 BM은 ‘패스’ 시스템과 소모품, 꾸미기 등으로 이뤄졌다. 대량 과금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형 뽑기’와 달리, 패스 시스템은 꾸준한 플레이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많은 이용자가 우려했던 장비와 변신, 펫(아미토이), 컬렉션 역시 대부분이 게임 내에서 수급해야 했고, 능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의성 위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테스트 기간 공개된 BM에선 확실히 ‘돈 쓰는 맛’보다 ‘하는 맛’에 집중하겠다는 포부가 읽혔다.

물론 정식 출시 단계에서 BM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TL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최문영 PDMO가 “글로벌

별 유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개발진의 의지”라고 강조한 만큼 현재 모습과 크게 달라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픽과 스토리 역시 기존 리니지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퀘스트와 지역 이벤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단순 ‘N마리 사냥하기’에선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중간 중간 등장하는 대화선이나 컷신에서도 이용자의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했고, 2D로 구성된 컷신의 퀄리티도 높은 편이었다. 여기에 대부분 풀더빙이 적용된 점도 몰입감을 높이는 요소다.

다만 사냥·전투 부분은 여전히 다소 밋밋한 느낌을 줬다. TL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캐릭터와 몬스터가 서로를 대상으로 지정해 공격하는 ‘타게팅’ 형태이고, 이동 공격이 불가능했다. 제자리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이전의 리니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편의성을 위해 구현해 놓은 자동이동·사냥(스텔라포스)은 기존에 PC나 콘솔에서 트리플A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들에겐 어색함과 불편함을 제시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넷마블, 매달 신작 쏟아낸다… “글로벌 정조준”

신작 미디어 쇼케이스

‘신의탑’ ‘그랜드크로스’ 등 3종 공개
7월부터 한달 간격으로 출시 계획
“신작 성과…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넷마블이 신작 3종으로 적자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넷마블은 쉬운 게임성과 탄탄한 스토리텔링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1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넷마블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신의탑: 새로운 세계, 그랜드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세븐나이츠 키우기 등 3종의 게임을 공개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신작 3종은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과 각각의 IP(지식재산권)를 잘 살린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공통점”이라며 “낮은 진입 장벽,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 뛰어난 전략성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요소가 많아 국내외에서 가치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마블의 타겟은 명확하다. 게이머가 아닌 전세계 콘텐츠 유저다. 넷마블엔투 권민관 대표 “우리의 경쟁자는 타 게임이 아니라 웹툰이나 쇼츠 영상과 같은 스낵 컬처 팬”이라며 “어떤 게임보다 쉽고 빠르고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틱톡과 숏츠, 웹툰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의 문화를 게임과 접목시켜 게이머뿐 아니라 콘텐츠 유저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의탑: 새로운 세계와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세로형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한 손으로도 쉽고 가볍게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짙 바



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1일 열린 신작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넷마블

뀌었다. 권 대표는 “과거에는 게임을 만들면 글로벌에 동시 출시했지만 지금은 게임을 만들고 필요한 국가에 OBT(오픈베타테스트)를 진행한다”며 “이후 게임성, 비즈니스모델(BM), 각종 지프 등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집중 국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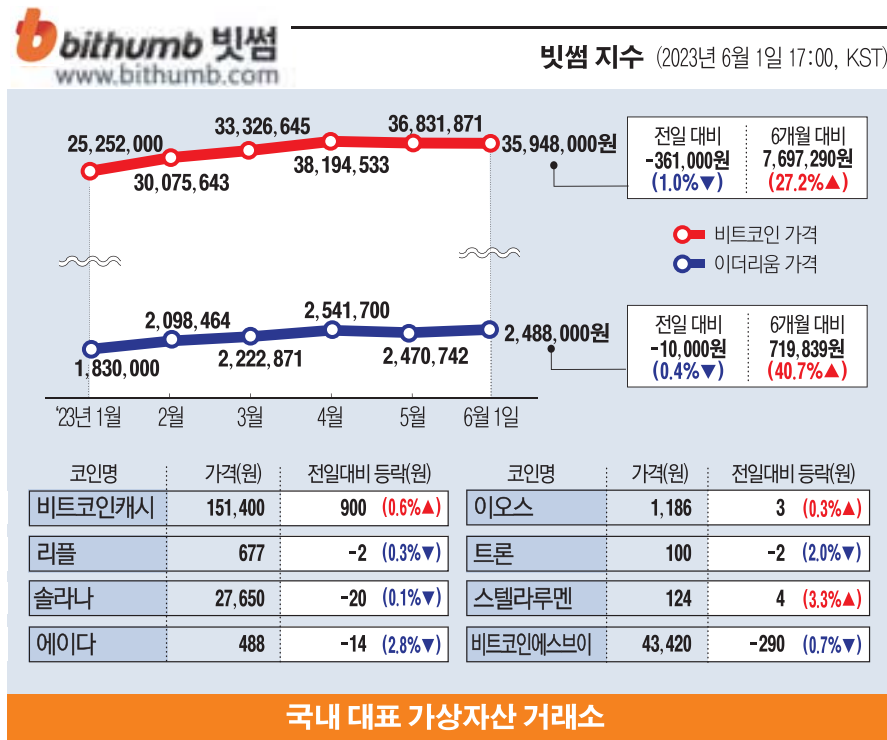
넷마블이 7월 출시하는 신의탑: 새로운 세계는 지난 2010년 7월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해 전세계 60억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웹툰 신의탑을 기반으로 한 수집형 애니메이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8월에는 넷마블에프앤씨의 오리지널 IP 그랜드크로스가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버전으로 출격한다. 마지막으로 넷마블 간판 IP 세븐나이츠를 활용한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방치형 모바일 RPG로 9월 출시된다.

넷마블은 신작 3종의 주요 타겟 시장을 세분화했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한국과 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의탑: 새로운 세계와 그랜드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은 국내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넷마블은 신작 3종을 통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7, 8, 9월 신작이 연달아 출시되면 매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결국 신작들이 성과를 내야 가능한 일이며 이익 측면에선 게임 출시 1~2개월 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새만금개발청 전폭 지원…‘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약

가보니 새만금 국가산단

법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부지 인허가 절차도 적극 지원
기업들 “실질 혜택에 입주 결정”
남북도로·수변도시 조성도 한창
정주 여건·인프라 부족은 애로

“새만금 산단이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좋아 입주하기로 했다. 또 확장을 위해서는 부지 인허가 등 절차도 중요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이차전지 기업 이피캠퍼스 관계자)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유치한 28개 기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4개사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GEM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사가 방문한 이차전지 기업 이피캠퍼스 2공장은 이달 10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기대감에 차 있었다.

이곳에서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전해질을 생산하게 된다. 2공장의 전해질 월간 예상 생산량은 약 150톤(t)으로, 현재 가동 중인 1공장의 생산량 15톤 대비 약 10배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소득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투자진흥지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 즉시 투자기업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단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간 50%가 감면된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산단 반경 15분 거리 내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여러 교통망이 풍부하다”며 “여기에 기업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산단 계획을 수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확장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지방처럼 여전히 정주 여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애로사항이다. 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 이피캠퍼스 2공장 생산시설 전경. 회사 관계자는 “세제 감면과 인허가 절차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좋아 입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권 이피캠퍼스 대표는 “직원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주요 대학 캠퍼스가 이전에 꾸준히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이외에도 새만금 일대는 남북도로 건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여러 사업이 한창이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

지 총연장 27.1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3·4공구, 12.7km) 구간은 준공됐고, 2단계(1·2공구, 14.4km) 구간을 건설하고 있다. 8월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남북도로 전 구간이 완공되면 군산에서 부안까지 기존 1시간 걸리던 게 2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을

지 내 6.6km로 조성되는 복합도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롤모델 삼아 수변공원 및 주거·상업·업무 공간이 어우러진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진다. 현재 매립 공정률은 97% 수준이다. 김청장은 “매립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도시 기반 조성공사도 적기에 추진해 달라”며 “스마트 수변도시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상공회의소, 애향분부 등 10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글·사진 박민웅 기자 pmw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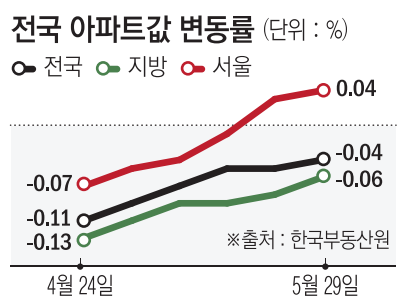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지방은 침체 지속

서울, 전주보다 높은 0.04% ↑
인천·경기는 일부 지역만 올라
지방 -0.06%·세종 상승폭 둔화

전국 아파트값이 지역별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집값 회복 체미를 보이는 데 반해 지방은 물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도 지역별로 여전히 집값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5월 29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03%)보다 0.01%포인트(p) 추가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주에도 0.04% 오르면서 집값 반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집값 상승 영향으로 서울 누적 변동률은 -4.12%로 또 다시 줄었다.

서울 지역별로는 강남 4구(서초·송파·강남·강동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



강세가 도드라졌다. 서초구는 이번 주 0.21% 올라 지난주(0.13%) 대비 0.08%p 급등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3% 상승했고, 송파구는 0.22% 올랐다. 두 지역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09% 상승해 전주(0.05%)보다 0.04%p 더 올랐다.

강북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용산구는 지난주와 같이 0.04% 올랐고, 마포구는 0.05% 상승해 지난주(0.02%)보다 0.03%p 더 올랐다. 성북구는 이번 주 0.01%로 지난주(-0.04%)보다 0.05%p 올라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내 선

호 지역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 지역과 지방은 집값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이번 주 보합으로 지난주(0.02%)보다 하락했고, 경기도는 0.04% 하락해 지난주(-0.06%)에 이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인천 연수구(0.04%)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0.28%) 등은 올랐지만, 인천 부평구(-0.09%)와 동구(-0.09%), 경기 양주시(-0.46%)와 안성시(-0.24%)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지난주(-0.08%)와 비슷한 수준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광주는 0.08% 하락해 지난주(-0.07%)보다 0.01%p 더 내렸다. 세종시는 이번 주 0.1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주(0.19%)보다 둔화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건설, 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

5000억 규모…부산시와 실시협약

현대건설이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승학터널 민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일 윤영준(사진 왼쪽) 현대건설 사장은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승학터널 사업시행 및 이행 조건 등에 합의하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선 2029년까지 터널을 개통하는데 뜻을 모았다.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 사상구 염곡동(염곡대교)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잇는 총연장 7.69km, 왕복 4차로 규모의 터널 공사로 총사업비는 5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했고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시간은 5년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30년간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는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 지자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사업방식으로 현대건설은 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출자하고 시공 주간사로 참여한다.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북항 재개발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서부산권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핵심 교통망을 완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첨단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모두 발휘해 부산 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을 연계하는 서부산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간선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현대건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정부기구 첫발

원희룡 “속도가 중요”…법령 개정 제안도 주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가 첫발을 뒀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심의를 의결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원회에 빠른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열

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간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

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제안을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위원장을 맡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의 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GS건설, 중·고층 모듈러 건축물 상용화 성공

내화시스템 개발 특허등록 마쳐

GS건설이 모듈화된 중·고층 건물 상용화를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물 시장 선점에 한 발 더 다가갔다.

1일 GS건설은 철골모듈러의 내화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고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 없이 모듈 간 접합이 가능한 원터치형 ‘퀵 커넥터’를 개발해 특허 출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 기술인증서를 받았다.

GS건설이 특허 등록한 ‘내화능능이 확보된 건축용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방법’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 설치된 철골모듈러 목업(Mock-up). 사진제공 GS건설

은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하부에 내화뿔철이 돼 있는 내화 보드를 부착해 3시간 동안 내화능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전보규 기자 jbk@

〈금융스타트업 그린리본〉

“보험금 청구 대신 해줘요”... 미리보는 미래 금융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넥스트라이즈’ 가보니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서 타사의 서비스를 둘러보고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왔는데 생활에서 사용하면 편리하겠다 싶은 서비스가 많았다. 스타트업의 기술에 정부나 대기업의 투자가 접목되면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진일보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36세 직장인 성민수 씨)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 이날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에는 첫날부터 다양한 스타트업 콘텐츠와 산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스 곳곳마다 많은 관람객이 서비스에 관해 문의하고 사업 제휴를 진행하는 등 분주했다.

워낙 사람이 많아 소음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부스에서 안내를 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도, 질문하고 정보를 듣는 관람객들도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올해 5회 짝을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450여 개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현대차,



조현래(앞줄 왼쪽부터) 콘텐츠진흥원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넥스트라이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450개 업체 중 23개 핀테크사 고가 부동산 조각투자 등 눈길 강석훈 산은 회장 “변화의 활력”

LG, 포스코, 한화, 벤티 등 국내외 대기업과 유관기관들도 독립부스를 차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핀테크존. 이곳에서는 23개사의 부스가 마련돼 국내 금융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보험, 해외송금, 아이디어 거래, 대체불가능토큰(NFT), 비대면 결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자

신들만의 기술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기술들이 소개됐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업체 핀다의 부스도 있었다. 핀다 부스에서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자사만의 특징을 소개했다. 핀다 관계자는 “현재 1금융권 3곳, 2금융권 8곳 등 총 11곳의 금융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9월까지 제휴 금융사를 20곳 이상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수익증권 거래소를 서비스한다. 적게는 수천 원으로도 건물 투자에 나서 재미와 채테크의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부스를 차린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우리는 수익성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을 많이 선택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스타트업인 그린리본에서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플랫폼 ‘라이프캐치’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손의료비보험부터 정액형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귀찮은 병원 서류 발급, 어려운 보험금 청구서 작성도 라이프캐치에서 대신 해준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보험사에 서류 하나만 잘못돼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런 부분을 개치해 서류발급부터 조회, 건강관리까지 고객에게 안내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젊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활력들이 우리 경제가 새롭게 역동하는 큰바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lly0403@



IBK 첫 프리미엄 카드 ‘K-22’

IBK기업은행은 ‘IBK카드 브랜드’를 적용한 첫 프리미엄카드 ‘K-22’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22 카드’는 카드명에 프리미엄 카드를 나타내는 ‘K(=KOREA)’와 연회비 금액인 ‘22’를 결합해 표현했다. 우량고객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식통합이용권, 신세계상품권 교환권, 골프문화상품권, 주유이용권 등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함께 △동반자 포함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국내 골프장 그린피 할인 △국내 부띠끄호텔 브런치세트 이용권 △골프장 커피 무료제공 △국내공항·특급호텔 무료발레파킹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금액에 대해 포인트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한화손보,女건강연구소 설립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과 건강을 생각하는 차별화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이프플러스 펌테크연구소’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펌테크(Femtech)란 여성을 의미하는 ‘Female’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를 결합한 합성어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및 상품, 서비스 등을 통칭한다.

펌테크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사업분야로, 국내는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 남성과는 다른 생리현상을 겪으며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자궁암 등 신체적 차이에 따른 고위험 질병군에도 쉽게 노출돼 있어 라이프 사이클 상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금융 상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적인 여성 연구와 이를 반영한 상품 개발, 라이프스타일의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한화손보는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로 거듭나고자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펌테크연구소를 설립, 전문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연구소 명칭에는 한화금융 5개사의 공동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를 사용해 ‘다이프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금융’이라는 브랜드의 지향점을 반영했다.

서지연 기자 sjy@

케이뱅크 정기예금 연 4% 특판

케이뱅크는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판 기간동안 ‘코드K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을 선택해 가입하면 연 4.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은 5000억 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가입 가능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면 별도 제한이 없다.

특판 시행과 별도로 금리 인상도 실시해 3개월, 6개월 상품에 대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금 20년 무이자로 갚는다

상황 어려울 땐 최대 2년 유예 연체등록 미루고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등록 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상황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 한시완화한다. 특례보증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 원 이내

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나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증자리론을 통해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이복현 “DSR 완화 기대 말아야”... 들쭉이는 시장에 경고

금감원장 취임 1년 간담회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기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것들을 합리화하겠지만 DSR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DSR 강화)이 흔들리는 방향의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DSR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



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DSR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거역

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금융회사의 종사자 등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까지도 돌려받아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금융사 검사를 기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그는 “가장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저축은행 연체자 채무조정 기회 ↑

금감원 채무조정센터 설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6월 중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취약차주와 직접 상담하는 등 저축은행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 매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금융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채무 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한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 나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이르면 이달 門열린다

이르면 이달 중 한우와 미술품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고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5월 말 금감원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보완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마감했다. 해당 조각투자 업체는 한우 조각투자 스타커퍼(뱅크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다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다.

◇이르면 6월 ‘제재면제’ =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6개 항목으로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공통 보완조치에는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5%를 일시금으로 적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 과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장치로 충당금을 설정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업체들과 증선위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서류제출을 마감한 상태”라며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실사 및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이라고

뱅크우·테사·아트투게더 등 제재면제 심사받는 5개 업체 보완조치 관련 서류제출 마감

증선위 협의 거쳐 6~7월 예상 증권사 ‘STO 발행’ 논의 시작

전했다.

제재면제 결정은 이르면 6월 내, 늦으면 7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최종 면제 시 사업 재개에 필요한 실행안들을 세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제재 면제 기한이 늦

어질 경우 유동성 문제를 우려중인 상황이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의 유동화관점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조각투자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제재면제시 조각투자 ‘날개’ … “안정성 확보, STO 본격화” =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면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됐던 터다.

투자사와 증권사들도 제재면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국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만큼 조각투자 업체들과 접촉, 투자제의 등을 제안한 곳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보면 증권사든 벤처캐피탈이든 현 상황이 제재 유예 기간이다보니 결론이 나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로 고민을 많이했던 투자자들도 안정성이 올라갔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면제 시 토큰증권(STO) 발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돼야 토큰증권으로 감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민규 기자 pmk8989@

‘반도체 하락’ 점쳤던 서학개미, 엔비디아 상승에 울상

5월 순매수 종목 살펴보니

“‘SOXS’ -70%실화인가요?”
“올해 하와이 가족여행은 틀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토론방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3배 레버리지 ETF인 ‘SOXS’나 ‘SQQQ’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의 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이들 ETF는 추종 지수가 1% 하락하면 3%의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1% 오르면 3%의 손실을 보는 구조의 상품이다.
“반도체가 추락할 일만 남았을 뿐”이라며 3배 인버스 반도체 상품을 사들인 서학개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반대

서학개미 월별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단위: 달러)

4월	종목명	순매수액	순위	5월	종목명	순매수액
	테슬라(TSLA)	2억4437만	1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볼 3X SHS ETF(TMF)	2억3274만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	1억2020만	2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	9052만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볼 3X SHS ETF(TMF)	1억1090만	3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	8606만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로 반도체 업황을 기대하며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에 투자한 개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권에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SOXS)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가 포함됐다.

두 종목은 서학개미가 각각 9052만 달러, 8606만 달러씩 사들여 순매수세 2위·3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개미들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SOXS의 5월 한달 수익률은 -28.29%, 올해 수익률은 -70.04%로 부진했다. SQQQ도 각각 -20.62%, -58.19%였다.

SOXS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 3배 수익을 얻고, SQQQ

는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면 3배 수익을 얻는다.

이 같은 순매수세는 SQXS과 반대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SHSETF’(SOXL)이 순매수세 2위를 차지하던 한 달 전과 완전히 대조된 상황이다. SOXL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 3배 수익을 얻는다. SQQQ는 한 달 전에도 순매수세 4

‘하락베팅’ SOXS·SQQQ 순매수 2·3위
엔비디아發 반도체 훈풍 ‘수익 마이너스’

위로 상위권이었지만, 현재 순매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올해 서학개미는 관련 종목의 하락에 베풀었다. 심지어 지난달 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훈풍을 입자, 주가가 고점에 달했다고 보고 매수세가 더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반도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엔비디아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5월 한달 수익률은 30.87%, 올해 수익률은 164.30%에 달한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퇴직연금 채권운용 유연해진다... 계열사 편입 비중 상향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특수채·지방채 편입 비중 높이고 IRP형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앞으로 퇴직연금의 채권 운용 여력이 넓어진다. 계열사 회사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가하면, 특수채·지방채 비중도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제도 운용 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자동차에 다니는 근로자 B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자동차 계열사인 A중공업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이하 DB형)에서도 동일한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채권이 ALM 운용 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

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종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한다.

IRP형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

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불건전영업 행위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함영주(왼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미래에셋證 ‘토큰증권·웹3.0’ 협력

하나금융그룹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및 웹3.0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이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 토큰증권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고 웹3.0 분야의 사업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함영주하나금융 회장은 “파트너십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증권가, CFD 거래 잇달아 중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건의 여파로 증권사들이 장외 파생상품 중 하나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가 강화되면서 CFD 거래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은 오는 5일부터 CFD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도 CFD 신규

키움·NH·신한 등 5곳 신규매매 중단
교보·메리츠는 신규 계좌개설도 멈춰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 거래한 물량을 청산하는 것만 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의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 중단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증권사는 이미 CFD 계좌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까지 중단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에서 CFD 계좌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CFD 도입을 피해왔고, 대신증권은 오익근 대표이사가 직접 CFD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조7697억 원으로 작년 말(2조3254억 원)보다 3개월 사이 4443억 원가량 증가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콘텐츠 공모전 「내 아이Dear」

공모기간 2023. 05. 30. 화 - 06. 30. 금

공모주제

- 저출생 대응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제도 개선안 (2안 중 선택)
 - 1 부담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환경
 - 2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 ※ 분야별 상세예시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모부문

- 아이디어 : 자유형식
 - 동 영 상 : 30초~120초 이내의 MP4 파일 (해상도 1920X1080 이상)
 - 카드뉴스 : 6~12컷의 PNG, JPEG 파일 (사이즈 900X900픽셀, 해상도 300dpi 이상)
- ※ 카드뉴스의 경우 수상작에 한하여 PSD, AI등의 원본파일 제출

공모자격

대한민국 청년(1983년생 ~ 2004년생)

제출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
-  홈페이지 주소: www.LH-IDear.com
- ※ 제출양식 : 참가신청서, 기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응모각서 등

시상내역

구분	아이디어	동영상	카드뉴스
최우수상	1명 / 200만원	1명 / 300만원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 100만원	2명 / 150만원	2명/ 100만원
장려상	3명 / 40만원	3명 / 60만원	3명/ 40만원

※ 참여자 중 3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 모바일 쿠폰 증정

문 의

- 공모전 홈페이지 Q&A / 02-2233-4027

상장 일정 3개월 앞… 대내외 악재 직면한 11번가

상장 예비심사청구 움직임 없어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적자폭 ↑
얼어붙은 IPO 시장도 걸림돌
“수익성 개선 집중… 연내 상장”

11번가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상장 일정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번가의 실적 집계, 얼어붙은 기업공개(IPO) 시장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어 상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번가는 수익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 연내에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11

1일 이커머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올해 9월 말까지 상장 작업을 끝내야 한다. 기간 내에 상장을 못하면 투자금에 8%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11번가는 2018년 국민연금, 사모펀드(PEF) 운용사 H&Q 코리아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으며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11번가는 현재까지 연내 상장 계획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작년 8월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골드만삭스를, 공동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하

진 잠잠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최종 상장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에 비춰볼 때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1번가 관계자는 “(상장 연기·중단 등)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11번가의 상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이슈는 실적이다. SK스퀘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1번가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18억 원으로 70억 원이 증가했다. 외형 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적

자 폭 확대로 내실 있는 성장은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외부 이슈로는 IPO 시장 한파가 꼽힌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쉐리, 오아시스 등 올해 IPO를 예고했던 기업들은 모두 상장 계획을 접었다.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럼에도 11번가는 연내 상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적 개선을 위해 수익성 관리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 고객 수요 기반 상품 확대를 내걸었다.

이달부터 정기 배송도 종료했다. 서비스 도입 7년 만이다. 수요가 감소한 배송 서비스를 접고 대신 더 빠른 배송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이다. 슈팅배송이 대표적이다. 슈팅배송은 11번가의 직매입 익일 배송 서비스다. 현재 슈팅배송 상품은 약 4만 3000여 개다. 최근에는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과 손잡고 슈팅배송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맞춰 영업손실률을 개선하면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매출액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23년 연간 매출액 1조 원과 전년 대비 개선된 영업실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아름다운 내 모습’ 찾기… 멀츠 에스테틱스, 첫 페스티벌

“사회에서 획일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자신감을 기반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여정을 응원하는 ‘컨피던스 투 비(Confidence To Be)’ 페스티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멀츠 에스테틱스(이하 멀츠) 주최로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컨피던스 투 비’ 페스티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진 ‘자신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응원하는데 주안점을 둔 멀츠의 대표적인 ESG 경영 프로그램이다.

본지는 1일 첫 소비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멀츠 에스테틱스 마케팅팀을

‘컨피던스 투 비’ 2만명 참여
“획일화된 美 기준 전환 필요
개개인 아름다움 찾도록 지원”

만나 ‘나다운 아름다움’ 찾기 여정에 대해 들었다. 팀원들 모두 “소비자와 만나는 첫 행사로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동참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예람 팀장은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멀츠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기업과 소비자 간 직접 접점은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우려가 무색할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하루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페스티벌을 즐겼다”고 미소 지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던 회사 의지가 반영됐다. 정진향 상무는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이 있다. 그



멀츠 에스테틱스 마케팅팀이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컨피던스 투 비(Confidence To Be)’ 페스티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멀츠 에스테틱스

에 따라 업계도, 소비자도 반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과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에스테틱산업에서는 외부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 시대가 선호하는 미인상 등을 매개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정 상무는 “이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고, 피로도가 높아진 대중들로부터 비판도 받아왔다”고 했다. 실제로 멀츠가 아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모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70%가 넘는 이들이 본인 외모에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정 상무는 “멀츠는 에스테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에스테틱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자 본인이 가진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컨피던스 투 비’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멀츠는 에스테틱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소

비자들에게도 ‘컨피던스 투 비’ 캠페인에 담긴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본인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앰배서더 4인(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미국변호사 이소은, 국가대표 비결 김예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예림) 선정이 대표적이다.

멀츠는 올해 자사 가치와 철학을 실제 화시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한다. 김소영 팀장은 “개개인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에스테틱의 역할”이라며 “멀츠는 미용의료가 획일적인 아름다움과 패스트 뷰티에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찾아가는 여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건강한 의료문화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SG 경영도 강화한다. 정 상무는 “멀츠는 ESG 경영을 통해 우리가 속한 업계의 인식을 바꾸고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전기 바이크 타고 라이딩 어때요?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11일까지 스웨덴 친환경 전기 바이크 ‘케이크’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스웨덴 전기 바이크 ‘케이크’는 2016년 출시됐으며, 북유럽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과 초경량, 고성능이 특징이다. 팝업에서는 마카 플렉스·오사플러스·칼크앤드로 등을 선보인다. 모델별 최대 시속 90km에 주행거리 111km의 친환경 바이크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롯데홈쇼핑 ‘반려 해변’ 입양… ESG 경영 박차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정화활동

롯데홈쇼핑이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입양’해 돌보며 환경을 개선하는데 나선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하고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참여는 ESG 경영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원 30여 명은 2시간 동안 약 1.5km에 이르는 해변 주위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 저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롯데홈쇼핑은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제주도 등에서 연 3회 이상 반려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반려해변 입양을 통한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했다”며 “해양 환경 보전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CI 바꾼 놀부 “종합식품외식기업 도약”

유통사업 확장 등 체질 개선

놀부가 외식기업 종합식품외식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놀부는 1일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종합식품외식기업 도약 비전을 담은 새 CI를 공개했다.

신규 CI는 한국적이면서도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과거 로고를 현대식으로 재해석



했다. 회사 측은 고객에게 가장 익숙한 국내 대표 한식 기업의 모습으로 외식뿐만 아니라 유통 사업도 함께 운영하며, 다시 놀부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알리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놀부는 외식·가맹 중심이던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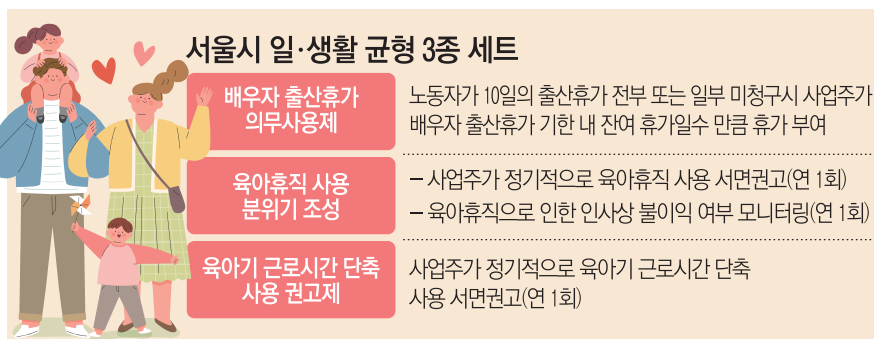
를 유통으로 확장하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본사를 경기 성남시에 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옮겼다. 또 신규 브랜드 직영 출점을 통한 외식 사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올해 4월 마포구 창전동에 ‘놀부향아리갈비’ 직영 1호점을 열었다. 이번 CI 리뉴얼과 본사 이전은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다. 놀부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과 수도권 지역 중심의 추가 직영점도 열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눈치보지 말고 써”…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

‘일·생활 균형 3종’ 시행

지난해 육아휴직 13만명 사용
“제도 손질해 저출산 위기 극복”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방안 짜져
대체인력 보완 등 뒷받침 돼야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법·제도가 부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일 이날부터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3일 무급휴

가’로 시작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문화팀에 따르면 시에서 10일을 모두 사용한 직원 비율은 약 76%다. 일부 사용한 경우가 14%, 아예 사용하지 않은 비율도 10%에 이른다. 민간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높다는 공공 부문조차 약 30%가 법이 보장한

휴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를 의무로 하는 건,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은 “다른 지자체로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0~3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다. 서울시는 ‘눈치가 보인다’,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등 육아휴직 사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한 차례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 권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은 고무적이지만 의무로 강제하지 못한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전 세계 출산율 ‘모범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은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

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부모가 각각 24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중 11주는 아빠 몫으로 ‘강제’ 할당하고 있다.

이정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가 어렵다”며 “이번 정책은 인식 전환이 목적인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혁신 ‘글로벌대’ 108곳 신청 27곳은 통·폐합 공약 내걸어

5년동안 1000억씩 지원 이달 15개 대학 예비지정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벌대 30 사업에 108개 대학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곳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교육부는 1일 전날 마감된 글로벌대 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대 31개교 중 25개교(약 80.6%), 공립대 6개교 중 1개교(약 16.7%), 사립일반대 66개교 중 64개교(약 97%), 사립전문대 63개교 중 18개교(약 28.6%)가 각각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4건(16개교), 대구 4건(6개교), 광주 8건(8개교), 대전 7건(9개교), 울산 1건(1개교), 세종 2건(2개교), 강원 5건(6개교), 충북 6건(8개교), 충남

14건(15개교), 전북 6건(9개교), 전남 6건(6개교), 경북 13건(14개교), 경남 7건(7개교), 제주 1건(1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대 30은 답대한 혁신으로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려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 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 적용되는데, 혁신성의 주요 내용은 ‘대학 안·밖, 대학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 대학들은 혁신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을 꼽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간 구조 조정을 전제로 글로벌대 학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면서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받고 10월 중 10개 내외의 대학을 본 지정한다. 30개 대학에 대한 지정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2026년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수능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檢 “윤관석·이성만 구속 필요”… ‘50억’ 박영수 곧 소환

尹 ‘송영길계 좌장’으로 규정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불러 朴 특검, 대장동 관련성 조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더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할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이 수사 시점 전후로 주요 혐의자 및 사건 관계인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 우려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실제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수수와 살포에 깊이 관여한 상황”이라며 “휴대폰 폐기 등 하나만을 두고 증거

인멸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행위의 흐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윤 의원을 ‘송영길계 좌장’으로 규정하며 경선 기간 송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의 경우 지역본부장에 전달할 자금 등 1100만 원을 캠프에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두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를 파악한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수자로 특정된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데다 혐의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료 요청 시 제공받았던 출입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인인적 사항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다.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전날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외항서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금융지주 수장들을 연달아 소환해 박 전 특검, 광상도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여신외항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수사 관련 압수물 분석과 함께 우리은행 관계자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박 전 특검을)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갑질 폭행’ 양진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엽기적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사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 사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 씨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의 연대보증금으로 9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배우자 A 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엔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 epark@

극장, 미술관·스포츠까지 품는다

OTT 등 '위협 극복' 위한 노력
영화관 '탈극장' 성공경험 있어
메가박스·CGV '시즌2' 기획

극장가가 경쟁 플랫폼인 OTT 콘텐츠 상영은 물론이고 미술, 스포츠 프로그램까지 기획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관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팬데믹 여파, 인상된 표값, 주력인 영화콘텐츠의 경쟁력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이 관객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자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다.

1일 메가박스는 피카소, 렘브란트 등 유럽 5개국 미술관이 소장한 유명 작가의 회화 작품을 대형 스크린에서 관람하는 '시네 도슨트' 프로그램을 1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보인 그리스신화편이 좌석판매율 최고 8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곧장 '시즌2'를 기획한 것이다. 미술 해설은 안현배 미술사학자가 맡는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헤이그의 마우리츠하이스 미술관, 스페인의 톨레도 대성당 박물관·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피카소 박물관 등이 소장한 걸작을 감상하고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알아본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CGV는 이나영 주연의 8부작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를 7일부터 단독으로 극장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현재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공개 중인 드라마로 1~4화를 한데 모아 100분 동안 이어서 극장 상영하는 형식이다.

지난해에는 롤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 2022 FIFA 월드컵 예선전 등을 극장에서 생중계하면서 게임과 스포츠 프로그램도 다수 선보였다.

스크린 영사를 기반으로 영상을 즐긴다는 영화관의 정체성을 아예 벗어던진 사



지난 4월 4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시네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석한 안현배 미술사학자(무대 앞)와 이를 경청하는 관객 모습



지난 3월 CGV 신촌점 일부관을 클라이밍장으로 리모델링한 모습

CGV

레도 속속 나온다. CGV는 피카디리 1958점, 구로점 상영관을 클라이밍 집 '피커스'로 교체한 데 이어 올해 3월 신촌점 일부 관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높은 층고를 활용해 이중 스포츠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내부에 스포츠플랫폼을 새롭게 꾸리고 골프 스튜디오 '디어프로치'를 선보인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CGV 관계자는 "영화관 사업자는 곧 '공간 사업자'인 만큼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팬데믹 이전부터 방탈출체험공간, 만화가 페, 볼링핀 등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취미생활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지난해 선보인 클라이밍 등 스포츠 플랫폼 실적이 좋았다"면서 "올해 관련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꽃 기자 pgot@

박스오피스 1위→관객 1위 쉽고 정확한 우리말 어때요

‘영화’ 로운 우리말

영진위 집계는 관객수가 기준
우리말 사용 때 의미 정확해져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지난달 31일 개봉한 '범죄도시3'를 두고 언론, 영화 배급사와 마케팅사, 온라인 조사회사 등이 쏟아내듯 사용한 표현이다. 작품의 흥행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관객 1위' 혹은 '매출액 1위'로 풀어 사용할 때 더욱 정확해진다.

'박스오피스 1위'는 미국 영화계에서 넘어온 표현이다. 영화 대표소를 의미하는 박스오피스(Box Office)에서 가장 잘나가는 영화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매출액'을 그 순위의 준거로 삼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지역 영화 흥행 집계플랫폼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이날 극장가 1위 작품은 하루 매출액 약 1100만 달러(한화 145억 원)를 기록한 디즈니 실사영화 '인어공주'다.

2004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집계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어전

일인지 '관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 달 3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장가 1위 작품은 하루 73만 명으로 최고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3'다. 2위와 3위는 각 2만여 명과 1만 8000여 명을 불러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다.

눈여겨볼 건 박스오피스 4위와 5위의 매출액 차이다. 순위가 높은 4위 '인어공주'보다, 한 단계 낮은 5위 '포켓 몬스터 DP: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의 매출액이 170여 만 원 더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명백히 관객 수가 많은 작품 순으로 영화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때 '박스오피스 4위'는 '관객 4위', '매출액 5위'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여건에서 '박스오피스 00위'를 사용할 경우 자칫 그 의미 전달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관객 1위', '매출액 1위' 등 우리말로 순화하면 그것이 한층 분명해진다. '범죄도시3'의 경우 '관객 수와 매출액이 모두 1위에 올랐다'고 설명할 수 있어 작품의 흥행세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으로서도 손색없다.

박꽃 기자 pgot@

너도 박스오피스 1위?
‘진실의 방’
청소 한 번 하자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아이들 독립했는데 이사할까?…내게 맞게 고쳐 쓰세요



■ 안쓰는 물건 버리고 정리정돈부터 시작



■ 화장실은 작은 것만 손봐도 삶의 질 달라져요



■ 스마트홈 어려워 마세요… 생각보다 쉽고 편리

‘평생 살 집’ 개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직장 위치, 자녀의 교육 등을 고려해 거주 지역을 결정한다. 그러나 은퇴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거주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로망만을 좇아 선불리 판단하면 낯선 동네와 이웃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원래 살던 집을 가꾸어 활용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

40·50세대에게 ‘은퇴 후 어디서 살 계획입니까?’라고 물으면 종종 ‘공기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다’ 등의 대답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자연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자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근처에 병원이 없어 고생하거나, 실버타운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 익숙한 지역 풍경과 커뮤니티를 뒤로한 채 ‘한적하고 공기가 좋지만 편의시설은 적절히 갖춰진, 너무 낯설지 않고 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찾되란 꽤 까다롭다. 그렇다면 노후에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이거나 시설 입주 대신 고려해볼 방법은 주택 개조와 인테리어다. 집을 나의 상태에 맞게 고치는 것이다.

내 집에서 나이 들기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집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Aging in Place, AIP)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AIP는 가진 여건이 변하더라도 살던 집, 연결돼 있던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나이 드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가급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돌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다. 그중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다. 내 집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개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속해 있던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것은 덤이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일본 정부는 ‘최후까지 내 집에서 산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고령자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문턱을 없애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나 미끄럼 방지 공사, 미닫이문 설

나이듦에 맞춰 ‘인테리어 바꾸기’

고령자 84% “지금 집에 계속 거주”
살던 동네가 주는 안정감도 한몫

공사방식 턴키·직영·셀프 나뉘어
각종 센서·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치는 기본이다. 지자체가 20만 엔(약 200만 원)까지 보조해준다. 영국의 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루비 슬리퍼 솔루션스’(Ruby Slipper Solutions)는 단순 시설 개조뿐 아니라 시공 완료 후 활용 상태를 점검해 보완해준다. 전문 요양보호사 치료 서비스도 원한다면 연계해준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집을 벌써 고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점이 오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 작은 요소부터 손본다면 장애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40대일지라도 문턱을 없애면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아이의 생활을 도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개조가 고령자뿐 아니라 그 외의 가족에게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집을 정비할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버리기, 정리정돈과 같은 ‘밀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바닥이나 책상, 의자에 마구 놓아둔 물건은 나를 해치는 흥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 부동산·주택 플랫폼 SUUMO에 따르면, 물건이 많을수록 생활이 더 운통해진다는 환상은 버리는 게 좋다.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쌓아두기보다 오히려 비웠을 때 물건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해방감을 얻게 된다.

추억이 쌓인 물건들을 영 버리기 힘들면 ‘15분에 27개 버리기’를 제안한다.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두고 쓰레기봉투를 든 채 집 안을 돌아다니며 제한 시간 동안 27개의 물건을 버리는 방식이다. 시간과 개수는 마음대로 바꿔도 좋다. 다만 천천히 보거나 오래 고민하지 않고, 물건을 매만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렇게 ‘8월의 물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비우는 훈련을 반복하면 된다. 흠어진 물건을 잘 정리하고 수납하면 집안일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이동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은 1회 15분, 하루 5~8회 정도. 옷장, 거실 서랍과 같이 정리할 장소는 하루에 한 군데를 정해 실시한다. 단번에 하려고 하면 피로감을 느

끼기 쉽다.

정리정돈을 끝마쳤다면 인테리어를 바꿀 차례다.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종합 업체에 맡기는 ‘턴키 공사’, 집주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 전문가를 선택하는 ‘직영 공사’, 직접 시공하는 ‘셀프 공사’로 나뉜다. 개인의 성향과 예상 비용에 따라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인테리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믿을 만한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목적,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면 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자녀의 독립,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거주한다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 각종 전자제품을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집 안 곳곳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면 좋다. 자동문이나 센서등은 개인의 반응 시간에 맞게 작동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생활 가전 제품이나 출입문 근처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해 두면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활동 내용이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문혜진 기자 hjmoon@

거실을 정원처럼… “디자인 중요하지만 위생·안전 고려해야”

인테리어 트렌드

트렌드 1. 현관 인테리어

김미경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와 2023년 인테리어 트렌드를 알아봤다. 김미경 교수는 첫 번째로 현관 인테리어의 변화를 언급했다. 현관은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대중의 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현관 인테리어가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현관은 인테리어에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예전에는 단순히 신발을 신고 벗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의 역할이 확대됐다. 해외와 같이 귀가 후 걸옷을 현관의 붙박이장에 벗어놓기도 하고, 택배 박스도 실내로 갖고

들어가지 않고 보관한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외부 오염물질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내부 공간이 매우 달라진다.”

또한 김 교수는 위생을 강조하는 트렌드가 욕실 인테리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짚었다. 이제 방마다 욕실이 있는 ‘1인 1실 1욕실’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 자가 격리를 할 때 욕실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에 이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다.

트렌드 2. 바이오필릭 인테리어

김미경 교수는 두 번째 트렌드로 바이오필릭 인테리어를 언급했다. 바이오필릭은 자연과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Bio)와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리아(Philia)



가 결합한 단어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서 파생됐다. 바이오필릭 인테리어는 나무, 돌, 햇빛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하거나

자연의 질감·패턴을 활용한다. 일상 공간에 자연의 요소를 채워 정신적 회복을 도와주는 인테리어 방식이다.

“코로나19기간에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늘었다. 아트워크는 말 그대로 벽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점점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쓰고 한쪽 벽면 전체에 식재료를 기르기도 한다.”

김 교수는 “발코니의 중요성도 커졌다. 발코니에서 식물을 키우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바비큐도 구워 먹으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필릭 인테리어의 일종인 플랜테리어(Planterior) 또한 인기다.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을 활용해 실내의 분위기를 가꾸는 것을 말한다.

실전: 중장년 트렌드 따라잡기

이제 인테리어 트렌드를 파악했다. 그렇다면 중장년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에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미경 교수는 “첫 번째로 정리정돈을 잘해야 하며, 두 번째로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먼저, 김 교수는 집 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이어 “대대적인 정리를 마친 후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면 키가 높은 장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위생과 안전성을 꼭 신경 써서 공간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효정 기자 shjlif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달려가는 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 청년들에게
⇒ 의리있는 편
청년을 위한 금융

내 편이 하나 생겼다

하나금융그룹이 당신의 편에서 하나의 힘이 될게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하나금융그룹

“청년행복프로젝트, 청년 정책의 한 획 그을 것”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개별정책보다 중장기 비전 담아
금융·복지·주거 등 타부서 협업
인생전환기 자아탐색·진로모색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 강추!

“2025년까지 가동할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 정책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1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보다 시정 철학 아래서 큰 프레임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청년행복프로젝트에는 청년 정책을 양적·질적으로 발전시켜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까지 청년정책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행복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올해는 총 54개 사업에 약 8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청년 입차보증금 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늘어났고, 고립·은둔 청년 및 서울 영테크 등의 기존 정책들도 고도화를 추구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까지 가동할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 정책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올해는 ‘연결(connecting)’을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 등을 연계해 민관협력을 강화해가겠다”며 “시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 캘린더’와 ‘청년정책 사용 설명서’도 제작했다”고 말했다.

청년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존재한다. 김 단장은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20~30대는 진로 탐색, 취·창업 준비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 단장은 금융, 복지, 주거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청년 정책을 위해 타 부서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에서는 단순히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은 시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구직 정보, 일자리 경험, AI 면접 등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김 단장은 “사업 부서별로는 모든 실·국·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청년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달마다 시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도 업무 교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청년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청년단의 덕택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서울 청년들이 꼭 참여했던 하는 정책으로 ‘청년인생설계학교’를 꼽았다.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는 인생 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이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전문적인 진단 도구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 행동유형을 알아보고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약 20%가량 진로설계 향상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올해는 진로 코칭과 참여자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자 코스별 프로그램을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다”며 “6월에는 청년들의 제안을 반영해 ‘대학 비진학 청년 특화 코스’도 모집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인생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제가 만나본 서울 청년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싶어한다”며 “우리 기성세대가 좀 더 청년들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고 박수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글·사진 김채빈 기자 chaebi@

에쓰오일 임원 3명 인사 단행
안종범 총괄부사장 사장 승진

에쓰오일(S-OIL)은 안종범<사진> 마케팅 총괄 수석부사장의 사장 승진 등 임원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1965년생인 안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입사한 뒤 경영기획실장, 전략기획총괄, 해외 마케팅 총괄을 거쳐 2018년부터 마케팅 총괄 수석부사장을 역임했다.

안 사장 승진 이외에 차원기 법무·컴플라이언스 본부 부분부장이 본부장(전무)으로, 이춘배 업무팀 리더는 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박양수 前 한은 경제연구원장
대한상의 SGI 원장에 위촉

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제3대 원장에 박양수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위촉됐다.

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신임 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 근무 32년 동안 조사국, 정책기획국, 금융안정국, 뉴욕사무소 등의 요직을 거치며 경제 전망 및 거시경제분석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리틀 버핏’ 애크먼 “다이먼 JP모건 CEO를 대통령으로”

다이먼도 “언젠가는” 정계진출 시사

‘리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사진>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의 내년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크먼 회장은 트위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10년을 관리할 모범적인 비즈니스와 재정 및 글로벌 리더가 필요하다”“다이먼 CEO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 애크먼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다이먼 CEO가 이날 아침 정계 진출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이먼 CEO는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지만,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애크먼 회장은 다이먼 CEO가 경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기고, 본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un@

머스크, 아르노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탈환

테슬라 주가 ↑ … LVMH는 ↓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을 제치고 세계 1위 부호 자리에 올랐다. 머스크 CEO의 재산은 약 1923억 달러(약 255조 4000억 원)로 평가됐다. 2위인 아르노 회장(약 1866억 달러)과의 격차는 약 57억 달러다.



머스크 CEO가 왕좌를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 회복 덕분이었다. 두 사람은 세계 최대 부자 자리를 두고 반 년간 접전을 벌였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65.55%나 상승했다. 테슬라 주식은 머스크 CEO의 재산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덕분에 머스크 CEO의 자신은 올해 553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반면 LVMH 주가는 4월 이후 10% 가까이 하락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윤해진 NH생명 대표 콜센터 체험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농협생명 고객센터에서 일일 콜센터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윤 대표가 상담사와 동석해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경청하며 상황별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서지연 기자 sjy@·사진제공 NH농협생명

부영그룹,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기부

부영그룹이 공군하늘사랑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조종사 유가족들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고 긍지를 가지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이희범<사진 왼쪽 세 번째> 부영그룹 회장은 정상화<다섯 번째> 이남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100억원의 기부금을 전달



하고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창업주 이종근<네 번째> 회장의 뜻을 전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사진제공 부영그룹

LH, 국가유공자 입주민 초청 용산공원에서 ‘보훈투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서울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30여 명을 초청해 ‘보훈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훈의달이 시작되는 1일 대한민국 전쟁의 역사가 보존된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120년간 금단의 땅

으로 여겨지다 최근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해 공원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진행했다. 또 국가유공자들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 전쟁기념관도 둘러 6·25 전쟁 전시물도 관람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인사

◆이투데이 △중합편집부 부장 장대명 △중소견정부 부장대우 조남호 △사회경제부 차장대우 김서영 △경기인천 주재기 차장 김재학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손영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정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박해규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오공명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김희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차장 조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거시농정연구본부장 김상현(거시농정연구본부 글로벌연구실장 겸직)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구조연구실장 이명기 △FTA 이행지원센터장 김종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중선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김현중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엄진영(농산업혁신연구본부 농업인력연구실장 겸직)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신산업연구실장 서대석 △유통혁신연구실장

홍연아 △식량경제연구본부장 황윤재 △식량경제연구본부 곡물경제연구실장 김종인 △축산경제연구실장 이용건 △원예경제연구실장 유종열 △식품경제연구실장 박미성 △농촌환경연구본부장 김용렬(농촌환경연구본부 농촌정책연구실장 겸직) △농촌환경연구본부 자원환경연구실장 정학균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이철 △산림경제연구실장 손학기 △농업관측센터장 정민국 △동향분석실장 유찬희 △반려동물복지연구단장 이두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나경연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이사 신정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임 △자산운용본부장 이도운

◆ABL생명 ◇선임 △GA관리부장 목진호 △GA기획부장 손길용 △중앙GA사업단장 백경호

◆IBK투자증권 ◇신규 임원 선임 △기업금융본부장(상무) 김병철

◆유진투자증권 ◇상무 신규 선임 △IPO실장 유장훈 ◇부서장 보임 △DT전

략팀장 정종원 △브랜드전략팀장 전종운

◆BNK투자증권 ◇신규 선임 △감사본부장 전무 김재호

◆한국딜로이트그룹 ◇파트너 승진 △권대현 김재호 김한열 김형수 박영범 이우근(회계감사본부) △송호창 이호진(세무자문본부) △강현구 김민호 김병화 김정열 허준(재무자문본부) △김혜미(리스크자문본부) ◇수석위원 승진 △김태기 현희성(세무자문본부) △장지식 정민강(재무자문본부) △유미령(경영지원본부)

부음

▲박종규 씨 별세, 박건후(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 씨 부친상 = 31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50분, 02-2258-5940

▲강경모 씨 별세, 정복순 씨 남편상, 강현창(비즈니스플러스머니마켓팀장)·현정 씨 부친상, 손사라 씨 시부상, 모스부슬론 씨 장인상 = 1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031-219-665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공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은 2019년에 완료됐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에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있는 3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밀고 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몇년이 지났으므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방침과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기

여했지만 계획 인구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옮겨왔지만, 인력은 옮겨오지 않은 것이다. 순증가 인구의 상당수는 주변의 구도시에서 이주한 주민으로 광역 단위의 전체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가령, 전북혁신도시에 순유입된 인구의 지역 분포는 인근 전주와 완주가 74%에 달하고, 수도권은 8%, 타 시도는 3%밖에 되지 않는다.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생활·교육·일자리 인프라가 열악해 정주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환경은 단순한 건물과 시설이 아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거의 맞벌이인데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려면 배우자의 일자리도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전학 올 만한 좋은 학교와 학원이 있어야 한다. 직장이 이전했으니 생활기반을 떠나 낯선 도시로 이사 오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혁신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업 성장과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예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전산, 금융, 법률, 조사, 컨설팅 등의 서비스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민간기업도 이전해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금융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을 장려했는데, 국민연금을 쫓아온 금융기관들은 혁신도시보다 전주시를 선택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개점했던 현대자산운용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2년도 못 돼 철수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몇 개만 바라보고 이전할 민간기업은 거의 없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옥죄는 또 다른 제약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비율이 너무 높으면 다른 지역에서 인재가 유입되지 못해 지방색이 고착화하는 역효과가 커진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공공기관의 인력과 일자리를 소외된 지방도시로 나누어 보태주는 정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절대로 지방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공기관과 더불어 인력과 기업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차 혁신도시는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이 갖춰진 지역으로 선정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만 따로 떼어 별개의 혁신도시를 신설하기보다는 자족력을 가진 도시 내에 위치한 기존의 산업 및 기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마중물일 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력이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야 혁신도시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복지플랫폼

황 보 람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는 4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국회의원 241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연장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3월 29일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검토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합의 이루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회사 노조 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인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일명 터너위원회로도 일컬어지는 연금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한국에 비해 훨씬 복잡한 공적 노인소득보장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당시 영국사회를 감안하면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터너위원회 활동의 성공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연금위원회 위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평등한 존중이다. 이들은

당시 영국 연금개혁에 대해 입장과 의지를 달리하던 총리, 재무장관, 노동연금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명받았으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일절 영향받지 않고 오직 자료분석과 상호토론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속했다. 둘째, 연금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기간과 범위에 대해 정부나 정당, 그리고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장받았다는 점이다.

사용자·근로자·정부 한발씩 양보

셋째, 2004년 10월과 2005년 11월 각각 발행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줄이고 이를 위한 조세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행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영국 국민들은 이자율 등의 수치가 아닌, 관성 또는 충동 등을 통해 저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국가의 강제저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 발간 이후 각 지역별로 열린 국민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넷째,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언론에 홍보하는 동시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금융기업단체,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 야당 정치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자문을 얻었다. 또한 현재 연금제도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어느 한 집단 또는 정당에 돌리지 않고 누적된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통합과 의견의 합의를 중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터너위원회의 성공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정부 모두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고 영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노인 모두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은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퇴직 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알랭 명언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다. 원수는 맞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평론가. 본명은 에밀 사르티에. ‘데페슈 드 루앙’지에 ‘노르망디인의 어록’을 3098회나 연재한 그는 짧은 에세이를 발표해 유명해졌다. 결정론을 경멸하고 ‘판단의 자유’를 중시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헤겔, 루소, 몽테뉴에 심취해 그들 사상을 발전시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68~1951.

☆고사성어 /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란 말. 문명의 발달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상사회를 이른다. 출전 노자(老子) 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어[小國寡民] 온갖 문명의 이기가 있어도 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멀리 옮겨 살지 않도록 하면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타고 갈 곳이 없고 갑옷과 군대가 있어도 진 칠 곳이 없다.” 노자는 문명의 발달이 생활을 풍부하고 화려하게 하지만, 인간의 노동을 감소시키고 게으름과 낭비와 생명의 쇠퇴 현상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소박하고 작은 소국과민의 사회를 이상사회, 이상 국가로 보았다.

☆ 시사상식 / 월광족(月光族, moonlight clan)

매달 받은 월급(月)을 모두 써버린다(光)는 중화권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들은 중국의 1가족 1자녀 원칙에 따라 대부분 소형제로 불리며 성장한 외동아들과 외동딸들을 뜻한다. 월급을 명품이나 자동차, 해외여행 등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숲 연구소장

기자수첩

손 민 지 / 자본시장부



개인투자자에게엔 일명 모시는 ‘신’이 있다. 이 신은 시기에 따라 변한다. 지금은 ‘배터리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융홍보이사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그를 찬양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열풍이 자본시장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다는 점이다.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당국은 한통속의 ‘나쁜 놈들’, 배터리아저씨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상황을 무 자르듯 나누기는

금융당국, 증권사, 종교도 싫다면...

쉽지 않다.

증권가와 당국은 몸집이 큰 만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만나는 취재원들만 비교해도 각 집단이 복잡다단하다. 배터리아저씨의 자극적이고 달콤한 발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분법적 사고는 간편하지만, 입체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자본시장에서 유일신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집단과 건강한 투자 가치관이 공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독립리서치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기성 증권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지대면서도, 소위 ‘종교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서다. 자본시장을 갈라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성 집단이 놓친 부분을 이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근 몇몇 독립리서치 대표를 인터뷰했다. 아직 신생 시장인 만큼 벤처기업 느낌의 신선함과 패기가 느껴졌다. 물론 이들은 개인투자자에게 ‘무조건 사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각종 기업 분석과 시장 정보를 소신껏 전달하고 싶어 했다. “당장은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이 더 인기 있겠지만, 언젠가는 소신껏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감명받는 개인투자자가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말한 독립리서치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최근 독립리서치들은 다양한 분야에도 전 중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보고서나 산업분석 보고서도 등장해 화제가 됐다. 이미 선진시장을 구축한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리서치들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상당하다. 기성 자본시장 업계와 상생하며 개인투자자를 돕고 있다. 언젠가는 국내 독립리서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집 팔아서 사라’는 매콤한 한마디 대신, 건강하고 다양한 투자 정보가 인기를 끄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 handmin@

이슈&인물

임기 반환점 맞은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에 집중할 것”

“우리 여성기업인 손으로 직접 키운 후배들이 10년, 20년 뒤 글로벌 강소기업 대표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배 양성에 대한 의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한 회장은 금속 판매 유통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비와이인더스트리 대표다. 여성의 기업 경영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부터 33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장수 여성기업가다. 지난해에는 제10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에 올랐다. 여경협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한 법정 여성경제단체다. 277만 개 여성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임 기간에 여경협은 18번째 지회인 남서울지회와 일반회원제도를 신설했다. 협회 회원수는 기존의 3배로 늘었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신설과 여성기업주간 예산 증액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 회장은 여성기업가의 어려움과 앞으로 지원 방향, 남은 임기 동안의 구상안을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드물어

시대가 변했다. 여성기업가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을 거쳐 여성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해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여성 인재들이 줄줄이 배출된다. 하지만 정작 창업을 꿈꾸는 여성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은 경영자·CEO가 희망 직업 5위(2022년), 8위(2021년)에 올라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위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 회장은 “여성이 창업하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주변에서 남자 기업가는 많이 봤지만, 여성 기업가는 찾기도 어렵고, 성공한 혹은 유명한 여성 기업가는 손에 꼽을 정도도 않나”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여성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과 부족한 사회적 인식 등이 여성 창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예산 한정

여성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전체가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판로확보와 자금조달, 인력부족 등 최근 중소기업에 짓누르는 다양한 악재로 인해 여성기업이 난항에 빠져 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틀에서 보면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은 예상보다 열악하다.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10개 사 중 4개 사는 여성기업이지만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여성기업 비중은 8.0%에 그친다. 수출액 비중으로는 4.6%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경쟁력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여성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확대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출 및 수출 확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지원센터는 여성기업의 수출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기업인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 대표로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활성화를 위해 수출 초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 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제법 높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 회장은 더 많은 여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배 여성 CEO들이 멘토로 참여, 여성 특성화고 및 여대생들이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회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여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잘 정착시켜 예산을 키우고, 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인식 부족이 여성창업에 악영향

해외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현장방문해 실질도움 방안 마련

여성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이번 사업은 후배들이 우리 세대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성 CEO들의 공감대에서 시작됐다”며 “미래의 여성경제인이 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업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경제연구소 예산을 확대하고 판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여성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다”며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해내는 역할과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은 미흡하다. 그는 “1999년에 ‘여성기업법’ 제정으로 여성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여성기업을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면서 다양한 여성기업과 관련한 정책적 발굴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019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여성기업 연구를 전담하는 ‘여성경제연구소’를 세웠지만 규모가 작아 현재 팀 단위 정도의 업무 수행만 가능한 상태다. 이 회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여성경제연구소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기업, 고용비율 70%

현재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은 약 70%다. 남성기업의 2.3배다. 여성기업이 늘어날수록 여성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다.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회장은 보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내달 열리는 ‘제2회 여성기업주간’ 행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올해 회원사 기업 100곳 이상을 방문하려고 한다”며 “더 많은 여성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구상안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기업은 느리지만 정직하고,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며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며 “여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의 92% 이상이 일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기 일을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 늘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한 여성기업이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법에 허용되는 ‘운전자 앞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법에 금지되는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합법 서비스를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사필귀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어제 신산업 혁신 갈등에 교훈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타다의 사업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다른 무엇보다 그간 새로 생긴 법제적 함정을 벗어날 길이 없다. 국회는 2020년 3월 운전자 앞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이 택시 업계 반발을 의식해 진입장벽을 더 높인 결과였다.

국내외적으로 IT 발달과 맞물려 신생 스타트업이 속속 고개를 내민다. 국내에선 로엔컴퍼니(로톡), 자비스앤빌런즈(삼점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닥터나우, 박밸류, 직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타다가 그랬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는 유사한 업종의 스타트업체들과는 판판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후보는 혁신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새 시도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수레바퀴는 달리 굴러간다. 타다는 결코 ‘타다 금지법’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뭐 미래가 있겠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권이 표발만 가웃거리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한 컷



‘배려’ 유발하는 센스

한 아파트 주차장, 커다란 ‘아기’ 스티커가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양한 스티커로 배려와 안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앞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자극적인 문구 대신 이런 ‘센스’를 발휘해 보면 어떨까.

신태현 기자 holijak@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 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ee 프로젝트

피겨 스타들의 달콤한 만남

피겨 스타 차준환 선수와 이해인 선수가
서울숲 속 K-Bee 도시양봉장에서
달콤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꿀벌의 소중함을 배우고
직접 양봉 체험을 하며 희망을 더한 두 선수
함께한 노력이 희망의 결실이 되도록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꿀벌의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ee 도시양봉장 2호 '서울숲'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 옥상 양봉장에 이어
약 12만 마리 규모의 두 번째 도시양봉장을
서울숲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금융그룹